

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2903호

## 한교총, 차기 대표로 김정석 감독회장 내정

상임회장회의에서 인선위 중간보고 받아… 사무총장 인선안은 보류  
공동대표회장은 김동기·홍사진 목사… 향후 추가 가능성  
김종혁 대표, 사무총장·법인사무총장 인선안 제시했지만  
논의 끝에 최종안은 다음 상임회장회의 때 결정하기로

한국교총연합(대표회장 김종혁 목사, 이하 한교총)이 차기(제9회) 대표회장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인 김정석 목사를 내정했다.

한교총은 최근 서울 한국기독교회관 한교총 회의실에서 제8-4차 상임회장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원인 선위원회 중간보고를 받았다. 공동대표회장은 김동기 목사예장 백석 총회장과 홍사진 목사(예성 총회장)를 우선 내정했고, 차기 대표회장이 1~2명의 공동대표회장을 더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교총은 회원 교단을 규모별로 가나다라 군으로 나눠 대표회장과 공동 대표회장을 안내하고 있다. 7천 교회 이상 교단으로 구성된 가군에는 예장 합동·통합·백석이 있고, 2천5백 교회 이상 교단으로 구성된 나군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기독교 한국침례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있다. 이 밖에 1천 교회 이상의 다군은 7개 교단, 1천 교회 이하의 리군은 21개 교단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

또 이날 회의에선 이번에 임기가 끝나

는 사무총장과 법인사무총장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일단 김종혁 대표회장은 공동대표회장들과 이 문제를 두고 의논했다며, 예장 통합·백석이 추천하는 인사를 차기 사무총장으로 하고 법인사무총장은 한직인 정찬수 목사를 연임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대표회장은 “한기총이 세워질 때 가 군에 예장 합동과 통합, 두 교단만 있었고 협동 출신 목사님(산평식 목사)이 4년 임기의 사무총장을 맡아 연임을 거쳐 8년 동안 봉사했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순서적으로 통합 출신 목사님이 사무총장을 맡는 게 좋지 않겠나”라며 당장 결정하지 말고 시간을 좀 더 갖고 논의해 볼 것을 제안했다.

정찬수 법인사무총장에 대해서는 그가 연임 없이 한 차례만 직을 수행했기에 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하면 좋겠다

고 덧붙였다.

다만 김 대표회장은 현 사무총장인 신평식 목사가 한교총 초대 사무총장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 온 노하우가 있고 정부와도 관계해 왔던 만큼 따로 자체를 만들어 한교총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자고도 제안했다.

이에 이영훈 목사(기하성 대표총회장,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차기 대표회장님과 일할 분을 미리 뽑는 게 타이밍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여기서 확정하면 전례가 안 좋은 것 같다. 결정은 차기 대표회장단이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며 당장 결정하지 말고 시간을 좀 더 갖고 논의해 볼 것을 제안했다.

김정석 목사도 “시간을 갖고 의견도 들어서 다음 회의 때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결국 김 대표회장이 제안한 사



한교총 제8-4차 상임회장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무총장·법인사무총장 인선 안은 오는 25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리

는 제9회 정기총회 순서와 안건을 비롯

해, 차기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선 오는 12월 4일

김진영 기자

## ‘2025 리바이벌 코리아’ 강남 한복판에서의 예배와 기도

그안에진리교회, 11월 23일  
강남역 광장에서 복음 선포

그안에진리교회  
(담임 이태희 목사)  
가 오는 11월 2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앞 강남 스퀘어에서 ‘리바이벌 코리아(REVIVAL KOREA) 강남광장기도회’를 개최한다.

이번 기도회는 ‘거룩한 대한민국, 위대한 통일한국’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와 부흥의 불길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마련됐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세 명 연시들의 교회와 사회 향한 메시지

1부에서는 찬양과 함께 ‘수년 내에 부흥께 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가 이어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합심기도의 시간이 마련된다. “말씀을 통해 오늘의 시대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해 가지신 뜻을 함께 나누게 된다”고 한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먼저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가 ‘한국교회를 향한 호소’라는 주제로 연설을 전하고, 이어 김은구 대표(트루스포럼)가 ‘대한민국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전하며, 이준근 박사



과거 리바이벌 코리아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기촬영을 하던 모습 ©그안에진리교회

(국제정치 아카데미 대표)는 ‘트럼프 시대 세계 정치와 한반도 통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이어간다.

세 연사는 각기 다른 영역에서 한국교회와 사회를 향한 메시지를 전하며, 현시대의 위기 속에서 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와 대한민국이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 심도 있게 나눌 예정이라고 주최 측은 전했다.

◆“거룩한 대한민국·통일한국은 오직 예수 안에”

기도회를 주관하는 이태희 목사는 “지금 한국교회와 사회는 새로운 영적 각성 이 절실히”며 “거룩한 대한민국과 위대한 통일한국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정한 부흥은 정치나 제도가 아

닌 회개와 기도에서 시작된다”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개인과 교회가 일어날 때, 이 땅에 영적 회복과 소망이 다시 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안에진리교회는 이번 기도회를 앞두고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에스더 금식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며 각자의 삶을 돌아키는 시간을 갖게 된다. 교회는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부흥의 불씨가 강남광장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속되는 광장사역, 기도와 복음의 불씨 이어가

교회 측은 “이번 강남광장기도회는 단순한 교회 행사가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



그안에진리교회 담임인 이태희 목사 ©그안에진리교회

을 기초한 기독교 보수주의 운동으로서 그안에진리교회가 지난 5월부터 매주 토요일 여의도에서 이어온 리바이벌 여의도 광장기도회 & 국민광장학교’ 사역의 연장선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희 목사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본점 앞(9호선 국회 의사당역 3번 출구 100m 직진)에서 열리는 광장기도회를 통해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분별력 회복을 위한 기도운동을 꾸준히 이끌고 있다.

이번 강남광장기도회는 그 동일한 부흥의 흐름을 서울 도심 한복판으로 확장하는 시간이라고 교회 측은 소개했다.

이태희 목사는 “우리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 오직 복음과 희개도 이 나라의 부흥을 구한다”며 “이번 강남광장기도회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룩한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 정부·선교단체, 2025 하반기 ‘해외선교 안전간담회’ 개최

해외파송 선교사 안전 확보,  
선교단체의 안전의식 제고 다짐



외교부는 최근 ‘2025년 하반기 선교단체 안전간담회’를 열고, 해외파송 선교사의 안전 확보와 선교단체의 해외 안전의식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교단 선교부와 지역 선교단체 관계자들을 비롯해 문체체육관광부, 테러정보통합센터, 한국위기관리재단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스데리 동향 및 주요 국가 정세△각 단체의 위기관리 사례△해외선교 안전 유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 대표는 “해외 선교사 파송 시 외교부가 제공하는 해외안전정보를 숙지하고, 위험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공관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도록” 선교단체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아프리카·중동·중남미 지역의 민간인 대상 테러에 주의할 필요성을 비롯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전 세계적인 반정부 시위 확산 가능성을 언급하며 파송 선교사들이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외교부는 “현재 중국 내에서 한국인 대상으로 한시적인 일방적 사증 협정을 강조했다.

선교단체 관계자들은 “해외 파송되는 선교사의 활동 계획을 미리 해당 공관에 공유하는 등 정부의 선교사 안전 확보 노력에 적극 동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선영 기자

## 용산 처음이자 마지막 주택수 제외 실투자금 1억원대 투룸 오피스텔 분양



### 비교 불가! 오피스텔 위치 끝판왕

아시아 실리콘밸리 착공 / 용산 철도 지하화 개발  
현대차 모빌리티 연구소 착공 / 국제업무지구 착공 예정  
대한민국 핵심지역! / 대체불가 위치 오피스텔

### 압도적 스펙 그 어떤 곳과도 다릅니다

프리미엄 발코니 / IoT 시스템 스마트 미리 / 25cm 더 높은 층고와 개방감 / 프라이빗 피트니스

### 이런 분들에게 추천 드립니다

일체 수익 극대화 원하는 분 / 개발호재로 시세차익을 원하는 분  
주택수 부담없이 추가 투자 원하는 분

### 자신있게 말씀 드립니다

용산 마지막 1억원대 투룸 투자 / 한시적 제공되는 주택수 제외  
망설이는 순간 용산에서 다시 기회 없습니다

**분양 문의 02-757-3000**

홍보관 주소: 용산구 서빙고로 17, 1층(센트럴파크타워)

# 나이지리아서 목회자 포함 10명 피살… 풀라니 무장세력의 공격 계속돼

카두나·플래토 주 기독교 공동체 대상 무차별 폭력…  
교회 “신자 납치된 채 두려움 속 예배”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나이지리아에서 풀라니(Fulani) 무장 세력과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으로 기독교인 9명과 한 목회자가 살해됐다고 5일 (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현지 교계와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종교적 박해의 연장선이라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28일, 카두나(Kaduna) 주 카우루(Kauru) 지역의 파린 두체(Farin Dutse) 마을이 무장 풀라니 세력의 공격을 받았다. 이들은 총기로 무장한 채 새벽 시간대에 마을을 금습해 민가를 불태우고 주민들을 무차별 사격했다. 이 과정에서 나이지리아연합교회(United Church of Christ in Nigeria, UCCN, 일명 HEKAN)의 야하야 캄바사야(Yahaya Kambasaya) 목사가 현장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또한 교인 20명이 납치됐다.

당시 교회 관계자 덴 그암나(Dan Gwamna)는 “무장 세력이 마을을 포위하고 종을 난사했으며, 캄바사야 목사와 몇몇 신자들은 인근 농장으로 피신했다”고 전했다. 총격이 멈춘 뒤 은신처에서 나왔던 캄바사야 목사는 등에 총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

다. HEKAN 교단의 아모스 카리(Amos Kiri) 회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악의적인 범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그는 “기독교인과 목회자들을 노린 체계적 공격이 북서부 전역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와는 “카우루 지구의 교회 성도들과 남자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달라”며 “캄바사야 목사의 순교가 헛되지 않도록 교회가 굳건히 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인접한 플래토(Plateau) 주에서는 한 채 새벽 시간대에 마을을 금습해 민가를 불태우고 주민들을 무차별 사격했다. 현지 기독교인 변호사 달리옵 솔로몬 면티리(Dalyop Solomon Mwantiri)에 따르면, 이날 밤 9시경 리옴(Riyom) 지역의 웨렝(Wereng) 마을이 테러리스트와 도적 무리의 습격을 받아 한 명의 기독교인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 면티리 변호사는 “사전에 당국에 경고를 보냈음에도 아무런 예방 조치가 없었다”며 분노를 표했다.

리옴 지역 행정 책임자인 사티 바투레 슈와(Sati Bature Shuwa)는 “이번 공격은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정부는 모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헌법적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관이자 지역 지도자인 크리스 기와(Chris Giwa) 역시 “불과 일주일 전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웠는데, 당국의 무대응 속에 비극이 재발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또 다른 사건은 웨렝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기독교 마을 크위(Kwi)에서 발생했다. 지역 지도자 르왕 텅원(Rwang Tengwon)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어진 공격으로 무장 풀라니 민병대가 크위를 습격해 8명의 기독교인을 살해했다”며 “7명은 첫날 희생됐고, 다음날 농장에서 일하던 또 다른 신자가 피살됐다”고 말했다.

풀라니족은 나이지리아와 사헬 지역 전역에 걸쳐 수백만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유목민 집단으로, 그 대부분은 온건한 무슬림이다. 영국 의회 국제종교자유 위원회(APPG)는 2020년 보고서에서 “일부 풀라니 무장세력은 급진 이슬람 사상을 따르며 보코하람(Boko Haram)과 ISWAP(아프리카 이슬람국가 지부)과 유사한 전략으로 기독교 공동체를 공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라쿠라와(Lakurawa)가 기독교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라쿠라와는 말리에서 시작된 알카에다 연계 조직 ‘자마앗 누스랏 알이슬람’을 무슬리민

회가 무장세력의 침입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기독교감시단체 오픈도어스(Open Doors)가 발표한 2025년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World Watch List)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으로 살기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하나로, 전체 기독교 순교자의 69%가 이 나라에서 발생했다. 보고서는 “나이지리아의 반기독교 폭력 수준은 이미 평가 지표상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오픈도어스는 “나이지리아 중북부 지역은 정부 통제가 약해 극단주의자들이 활개치는 무법지대가 되었으며, 보코하람, ISWAP, 그리고 신증 태러조지 라쿠라와(Lakurawa)가 기독교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라쿠라와는 말리에서 시작된 알카에다 연계 조직 ‘자마앗 누스랏 알이슬람’을 무슬리민



나이지리아에서 풀라니(Fulani) 무장세력과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으로 기독교인 9명과 한 목회자가 살해됐다. 사진은 피해자의 시신이 담긴 관의 모습. ©CDI

(JNIM)과 연계된 신증 지하드 단체로, 현재 북부 전역으로 세력을 확장 중이다. 나이지리아는 2025년 박해 순위에서 전 세계 7위에 올랐으며,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납차폭력학살의 위협 속에 신앙을 지켜가고 있다.

최승연 기자

## 케냐 복음주의 지도자들, 종교단체 규제 법안에 강력 반발

케냐 교계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종교의 자유 침해”,  
신앙 공동체는 국가 기관이 아니다”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케냐의 주요 복음주의 교회 지도자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종교단체법(The Religious Organisations Bill)과 종교 단체정책(The Religious Organisations Policy)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6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현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회를 정부의 통제 아래 두려는 시도이며 반대 입장장을 분명히 했다.

복음주의연합회(Evangelical Association of Kenya, EAK)와 케냐교화·성직자협의회(Church and Clergy Association of Kenya, CCAK)는 지난 10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법안은 종교단체를 정부 산하 기관처럼 다루며 국가의 직접적인 관리 체계 아래 두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의 감독(oversight)을 도입하는 것은 종교 자유를 침해하며, ‘국가 종교를 두지 않는다’는 현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법무장관실 산하에 종교 단체자문위원회(Advisory Board)를 신설하고, 종교단체등록관(Registrar of Religious Organisations)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등록관은 종교 단체의 등록·정자취소 권한을 가지며, 모

든 종교단체의 등록 현황을 관리한다. EAK는 법안의 감독(oversight)이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정부가 자의적으로 이를 해석해 예배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CCAK는 대통령에게 종교단체들이 의견을 제시할 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CCAK 의장 허드슨 은데다(Hudson Ndeda) 감독은 “법안에 등장하는 ‘우산 단체(umbrella body)’ 개념과 ‘위원회 설립’ 조항은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결사의 자유에도 반한다”며 “이 법안은 종교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등록하지 않은 교회나 지도자에게 500만 케나 실링(약 3만9천 달러)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과인 처벌”이라며 “정부가 종교기관을 규제하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연합체인 케냐 복음주의 토착 기독교연맹(Federation of Evangelical and Indigenous Christian Churches in Kenya, FEICCK)도 성명을 통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토착 교회들이 제도권에서 배제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

냈다. FEICCK의 새뮤얼 은지리리(Samuel Njiru) 감독은 “이 법안은 사실상 현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CDI는 이 같은 법안이 지난해 발생한 ‘사카홀라 학살(Shakahola Massacre)’ 사건 이후 등장했다. 해당 사건은 극단주의 종교집단의 조작으로 500명 이상이 사망한 참극으로 이를 계기로 윌리엄 루토 대통령은 종교단체 감독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태스크포스는 이후 종교단체를 통합 관리하는 ‘종교위원회(Commission of Religious Affairs)’ 설립을 권고했다.

케냐 정부 측은 이번 법안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교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범죄와 극단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계는 정부의 개입이 신앙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케냐에서는 ‘단체법(Societies Act)’에 따라 종교기관이 등록되어야만 법적 지위를 갖는다.

‘종교단체정책 2024’ 초안은 종교활동을 명확화 규정할 법적 체계가 없다는 점,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범죄의 불명확한 처리, 종교기관의 법적 지위 부재, 그리고 온라인 종교 콘텐츠의 무규제 상태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극단주의나 사이비 집단 피해자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의 부재와 행정 비효율성도 지적했다.

최승연 기자

## 대북인터넷방송,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계의 창을 연다

오는 11월 11일, 대북인터넷방송(KIS) 출범식 개최

최근 급변하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 끊길 위기에 처한 가운데,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북 방송이 등장했다. 방송은 인터넷 기반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하며 알권리를 보장할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3월 14일,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 명령제14238호)으로 미국의 대북 방송인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송출이 중단되었고, 7월경 한국 정부의 대북 정보 유입 활동도 전면 중단되면서 대북 정보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간 대북 방송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대북인터넷방송(KIS)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정성진 KIS 초대 이사장은 “정보는 시대의 변화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며, “북한은 정보의 자유가 제한된 사회로, 외부와의 단절 속에서 ‘정보’라는 산소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세계시민으로서 보편적 가치와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KIS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KIS의 초대 대표를 맡은 이영현 변호사는 “미국과 한국의 정치적 변화에 대북 방송 매체들이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를 알리고 독재에서 구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출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한미 정부가 외면한 북한 주민의 정보 생명줄을 대한민국에서 다시 복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리는 대북인터넷방송(KIS) 출범식에는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의 기조연설을 비롯해 대한변협 인권재단 신영무 이사장, 칼 거쉬만 전 미 국립민주주의기금 회장, 그렉 스칼라 등 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 글로벌 인사들이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장 제임스 하난, 박서길 Link 한국지부 공동대표 등 다양한 대북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KIS는 단기적으로는 해외 체류 북한 주민들, 장기적으로는 북한 내 2,300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소통과 알권리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송 관계자는 “KIS는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콘텐츠와 플랫폼을 구축해, 기존의 제한적인 정보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저비용 고효율의 대북 전문 인터넷 방송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KIS는 독자적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운영하며,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트위터) 등 글로벌 플랫폼뿐만 아니라 중국의 쾨이서우, 떠우인, 우우쿠, 러시아의 OK, VK 등 주요 국가들의 플랫폼을 통해 해외 체류 북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KIS는 주요 방송 프로그램으로 탈북민 관련 정책 및 지원 소개, 한국 정치 탈북민 유튜브 채널 분석, 북한 및 대북 관련 정보 콘텐츠의 허브 역할을 위한 ‘방송국을 공유합니다’,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판 글로벌 북한 이슈 현장 브리핑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남북한 문화예술 소개와 다양한 코너들도 함께 제공 할 계획이다.

장지동 기자

LX 하우시스

창호의 프레임을 새롭게

뷰:프레임



퍼펙트 슬림뷰:  
베젤리스 설계

클리어 엣지뷰:  
논슬리콘 디자인

멀티플 화이트뷰:  
다양한 화이트 톤 소재



LX Z:IN

2024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창호 부문 최다 1위(18회)  
LX Z:IN 창호

# “‘험로’였던 32년 이주민 사역… 자라게 하신 하나님”

제45회 신촌포럼, ‘270만 이주민 시대, 선교인가 목회인가?’ 주제로 열려

제45회 신촌포럼(대표 박노훈 목사)이 최근 서울 신촌성결교회 아천홀에서 ‘270만 이주민 시대, 선교인가 목회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예배와 주제강연 및 패널토의 순으로 진행된 가운데 주제 강연에선 이명재 목사(실로암교회)가 ‘이주민 목회, 그 시작과 미래’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이 목사는 그가 담임하는 실로암교회의 다양한 미안마 이주민 사역을 소개하며 “32년의 이주민 사역은 처음에는 멀고 먼 혐로만 같았다. 처음에는 ‘꽁나물 사루에 물주는 것 같다’는 무시도 있었다”며 “그러나 그렇게 물을 한없이 주다 보니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을 너무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올해 2월 미안마 양곤을 방문했다. 실로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예배를 드렸다. 그 자리에 100명이나 모였다. 할



제45회 신촌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이명재 목사가 강연하고 있다. ©신촌포럼

아버지, 할머니가 된 형제자매들은 손주까지 손잡고 왔다”며 “불교의 대불림이 아닌 기독교를 대불림하는 모습을 보며 크게 감동 받았다. 그렇게 키운 자녀들이 이제 이주민 4세대가 되어 한국으로 유학을 오고 있다”고 했다.

이 목사는 “32년이 지나니 미안마 전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있다. 형제자매들이 한국에서는 고국이 아니기 때문에 날개를 펴지 못한다. 그러나 고국으로 돌아가면 그날부터 비전의 날개를 펴기 시작한다”며 “한국에서 양육을 받고 만난 하나님을 가족, 친척, 이웃, 고향, 사회 저변으로 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실로암교회의) 한국 성도님들은 이주민 사역을 하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다”며 “한국 성도님들은 미안마 형제자매들과 일대일 관계로 맺어져 있어 주중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기도해주는 듯하다. 정말 웃음이 넘치는 공동체다. 언어와 인종과 문화가 달라도 돌아가면 그날부터 비전의 날개를 펴기 시작한다”며 “한국에서 양육을 받고 만난 하나님을 가족, 친척, 이웃, 고향, 사회 저변으로 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의 사역 계획에 대해 “지금 한국에 거주하는 미안마 이주민이 5만 3천 명에 이르고 있다. 어찌하든 그들이 한국에서 복음을 접하도록 문서 사역을 해나갈 것이고, 실로암교회의 가장 가까운 이웃을 미안마로 주님께서 지정해 주

셨으니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사마리아인과 같은 역할을 꾸준히 하는 것”이라 고 했다.

이 목사는 “그리고 그들이 실로암교회의 품 안에서 자라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고 장차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들이 또 자기 백성을 품도록 격려와 위로를 주는 사역을 이어갈 것”이라며 “특별히 우리 교회 전도폭발 훈련이 있는데 모든 형제자매들이 그 과정을 거치고 돌아가고 국에서 킹덤 빌더(Kingdom Builder)로

살도록 꿈을 나누는 사역 비전이 있다”고 했다.

강연 후에는 전철한 목사(한국외항선교회 회장)가 좌장을 맡아 ‘한국교회는 이주민 목회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패널로는 미안마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이대장 장로(신촌성결교회 영어예배)가 나섰다.

미안마 이주민들은 이 시간을 통해 어렵게 한국에 오게 되었고, 신앙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신앙을 가진 후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을 이야기 했다. 또 한국교회의 이주민 사역에 대한 생각과 향후 선교에 대한 계획 등과 관련해 서도 그들의 의견을 나눴다.

한편, 신촌포럼 대표인 박노훈 목사는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이주노동자 공동체가 확산되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의 역할을 진단하고 ‘한대의 신학’을 바탕으로 동행의 길을 모색하고자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 AI와 기후위기 시대, 교회의 문화선교를 새롭게 상상하다

예장 통합 종회문화법인, ‘2025 문화목회플랫폼·선교적 교회로서 문화선교’ 세미나 개최

예장 통합 종회문화법인이사장 김운성 목사(이장로회신학대학원총장 김운용 목사)에서 ‘2025 문화목회플랫폼·선교적 교회로서 문화선교’ 세미나를 ‘AI 기후위기 그리고 문화선교와 현재와 미래를 상상하다’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행사는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첫 번째 세션은 전기 기후위기 전 김운성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김 목사는 “오늘 모임이 교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한다. 과거 교회가 문화적으로 앞서 있던 때가 있었지만 오늘날은 외부로부터의 도전이 훨씬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가 문화의 중심에 서 있는 시대에 교회는 여전히 대응에 더딘 현실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모임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의 목회적 방향과 문화적 사명을 다시 생각하며, 현장과 신앙이 만나는 접점을 찾아가는 작은 출발점이 되었다. 종회문화법인이 그 중심에서 더 폭넓은 사역을 펼쳐가길 기대하며, 모든 이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때 교회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첫 번째 세션은 선교적 교회, 시대의 질문에 답하다: AI와 기후위기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곽소나 선임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이 ‘기술을 뛰어 넘은 문화적 상상력’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곽 연구원은 “로봇이 일상으로 스며드는 시대, 핵심은 ‘사람이 어떻게 로봇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에 있다. 연구의 축은 세 갈래다: 로봇이 환경사람을 인지해 스스로 판단행동하는 소셜 로봇, 사람으로 로봇을 어떻게 해석·추론·반응하는 지에 초점을 둔 인간 관점 설계, 그리고 청소기처럼 익숙한 제품에 자동화·지능을 입히는 지능형 제품 디자인, 사회심리학을 토대로 시선(케이스) 설계처럼 미묘한 상호작용 규칙을 실험해 정교화한다.



곽소나 선임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이 ‘기술을 뛰어 넘은 문화적 상상력’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최승연 기자



박준 교수(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 연구원)가 ‘기후위기 시대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최승연 기자

박 교수는 “전 세계가 동시에 겪는 삼중 위기인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오염폐기물이 인류의 안전선을 넘고 있다. 지구 시스템의 건강지표인 ‘행성 한계’ 9개 중 7개가 이미 위험 구간으로 넘어섰고, 산업화 이전(1850~1900년 평균) 대비 지구 평균기온은 최근 10년 기준 약 1.2~1.3°C 올랐다. 대기 중 CO<sub>2</sub> 농도는 산업혁명 전 280ppm 안팎에서 오늘날 420ppm+로 치솟아 수백만 년 사이 전례 없는 속도로 상승 중이다. 기후변화는 단일 이슈가 아니라 다른 한계들에 연쇄적으로 충격을 주는 ‘코어 리스크’이며, 생물 다양성이 붕괴의 결정적 가속 요인이기도 한다”고 했다.

그는 “‘사례로는 감정 신호를 따뜻함·진정빛으로 주고받는 휴대용 감성 로봇, ‘불쾌한 골짜기를 피하려 외형과 행동 복잡도를 맞춘 양어 청정 로봇(욕설에 ‘영’이 들었다가 바른 말에 회복되는 피드백 장치), 그리고 치료용 휴머노이드의 움직임을 문화 콘텐츠(뮤직비디오) 매체로 전환한 실험이 있다. 동시에 시장 실패를 거듭한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분석해, 소비자가 외형으로 추정한 범주와 실제 가능성이 어긋날 때 거부감이 커진다는 점을 짚는다. 사람처럼 보이면 ‘무엇이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제한된 기능만 제공하는 모순이 불만족을 기운다. 반대로 청소기·공기청정기처럼 ‘무엇을 하는 물건인가?’가 명확한 지능형 제품은 기대·경험 정합성이 높아 수용성이 커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관점에서 한글 블록 놀이와 발음 학습을 결합한 ‘한글봇’, 생활공간을 용도에 맞춰 접고 펴며 재배열하는 로봇 가구 등 사람의 생활 맥락에 맞춰 움직이는 사물들을 제안한다. 더 나아가 소셜 로봇을 허브로, 여러 지능형 제품이 협력하는 에코시스템을 구상하고, 로봇이 사람의 행위를 ‘대체(반복·위험·더러운 3D 업무)하거나 ‘유도(동기·보상·재미로 행동을 이끌기)하는 두 축의 성적표를 제시한다. 쓰레기통을 예로 들면 자동 수거 장치는 대체에, 떨어지는 소리피드백으로 버리게 만드는 장치는 유도에 해당한다. 일상의 선한 습관 형성, 배움과 돌봄의 현장에서 로봇은 주인공이 아니라 ‘맥락을 읽고 의미 있게 거드는 조연일 때 가장 큰 가치를 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분명한 방향이 있다. 청조 세계를 ‘정복’이 아니라 ‘돌봄’과 ‘정지기적으로 읽어온 전통’을 오늘의 위기 속에서 재확인하고, 희망

감축과 생태 회복, 정의로운 전환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의 응답이 된다. 분열을 조장하는 가짜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데이터와 이웃 사랑에 근거한 대화·연대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질문은 ‘기후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 응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한편 세미나는 첫 세션에 이어 ‘선교적 교회, 문화선교를 실천하다: 3040세대 새로운 교회’, ‘토크 콘서트’, ‘문화선교 네트워크’ 세션 순으로 진행됐다. 최승연 기자

당신 주변에는 LS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뒤에는 LS가 있습니다

**Everywhere you live and work**

**LS**

본 광고는 시가지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전력 공급 및 제어 시스템>

<해저 전력케이블>

#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마포삼열 선교사 후손 데이빗 헤켓 목사 방문

마포삼열 선교사의 유산을 기리며,  
후손에게 유물 기증 및 숭실대 역사 재조명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원장 박삼열)은 지난달 2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평양승설' 제3대 교장 마포삼열(Samuel A. Moffett) 선교사 후손 데이빗 헤켓(David Hackett) 목사 숭실대 방문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1부 차담회, 2부 오찬, 3부 캠퍼스 투어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숭실대학 교 베어드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차담회는 김회권 교목실장의 기도로 시작됐다.

이윤재 총장은 숭실대학교의 역사를 되짚으며 "1897년 13명의 학생으로 출발한 숭실은 현재 17,000여 명의 학생들이 다니는 교육기관으로 성장했다"며 "마포삼열 선교사님의 신앙 유산을 기억하며,



데이빗 헤켓 목사 방문 기념 차담회 기념 사진. ©숭실대

이날 행사에서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서 제2권, 2017)과 『만주의 마틴』 등 도서를 헤켓 목사에게 증정했다. 이에 헤켓

목사는 마포삼열 선교사의 아들 마삼락 (Samuel H. Moffett, 1916~2015) 선교사가 생전 사용했던 다이어리를 이윤재 총장에게 전달했다. 해당 다이어리는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품으로 등록될 예정이다.

헤켓 목사는 "평양에서 태어나신 마삼락 선교사님께 평양승설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며 "1974~1975년 동안 숭전대학교 대전캠퍼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도 있다"고 전하며 숭실대학교와의 깊은 인연을 언급했다.

행사 후, 헤켓 목사는 한국기독교박물관을 둘러본 뒤, 오는 10월 31일 개관을 앞둔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산하 '한국기독교자료센터'를 방문했다.

박삼열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장은 "숭실대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인 마포삼열 선교사의 혼신을 기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선교사 후손 네트워크 사업과 그들이 보유한 미공개 유물 기증 협의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또한 데이빗 헤켓 목사를 섭외하고 사회를 맡은 성신형 상임연구위원과 통역을 맡은 John-Francis Kinsler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장지동 기자

## “교회 공간을 열린 돌봄통합플랫폼으로 활용하자”

장현일 원장, 한기장복지재단 포럼에서 제안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총회장 이종화 목사) 산하 사회복지법인인 한기장복지재단이사장 복영규, 사무국장 김승종이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돌봄목회와 돌봄선교 실천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목회자와 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지역교회의 역할과 돌봄모델을 모색했다.

김승종 목사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2026년 한국교회 목회 방향을 '지역사회와 교회를 잇는 돌봄으로 설정해, 교회 공간을 열린 돌봄통합플랫폼으로 활용, 지역 돌봄 사각지대를 줄인다면, 교회는 공공성과 공교화성, 신뢰성을 회복하고 삶의 예배자로서 섬김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법(1990년),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시스템(2013년), 스웨덴의 재가돌봄 서비스(1950년)와 유사한 방향성을 갖는다"며 "초처출생 초고령사회로 인해 인구 감소로 돌봄 수요가 급증해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체계가 한계(연금기금 소진 2055년)에 따른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역 중심 돌봄통합체계 전환이 시급한 이 때, 한국교회는 '통합돌봄선교 통합돌봄목회' 구축이 시급하다"고 했다.

20년 넘게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을 섬겨온 서울 마포구 대흥동교동협의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장 원장은 "대흥동주민자치센터와 함께 고독생프로젝트인 위기 가구를 발굴지원하며 무료급식, 엘드림노인대학, 무료진료, 도시락 전달 등 지역 맞춤형 돌봄통합을 실천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김용익 이사장(재단법인 돌봄과미래)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기장복지재단

은 '돌봄통합지원법은 복지노동·건설 등 정부 부처 간 협조와 철저한 지방분권이 함께 이루지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고난도 정책'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사업별 지원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기초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성구 목사(새날파회)는 "돌봄통합시대 지역주민운동 관점에서 돌봄권과 기본사회 주민 일자리 보장과 돌봄거버넌

스 구축, 지역사회가 서로 돌보는 역동적 공간을 위해 조직화하고 지역사회돌봄 관계망을 조직·재생산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 토론에선 박종호 목사(전곡사랑교회), 신혜정 관장(가방5종합사회복지관), 이호영 사무총장(한국종교사회복지협의회)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교회의 돌봄선교에 관해 논의했으며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있었다.

김진영 기자

## 동아보감 경옥고

### 소중한 당신께 귀한 마음을 담은 ‘프리미엄 한방 자양강장제’

다음 경우의 자양강장  
병증병후 · 허약체질 · 육체피로 · 권태 · 생년기 장애  
동아보감 경옥고는 동의보감 처방으로 엄선된 약재를 120시간 달여  
소중한 분을 위해 완성한 한방 프리미엄 자양강장제입니다.

## 경옥고

자양강장 · 병증병후 · 허약체질 · 육체피로 · 권태 · 생년기 장애



## “마약, 예방뿐 아니라 중독 치료 지원과 의학적 접근 시급”

고려대 담록, 장진우 고려대  
안암병원 교수 초청 강연

(사)대학을 위한 마약 및 중독방지센터 이사장 두상달 장로, 이하 담록)의 주제인 고려대 담록이 최근 서울 고려대 신법학관 207호에서 장진우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외과 교수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마약류 중독 예방과 치료에 대한 청년 세대의 전문적 이해를 높이고 대학 현장에서 실제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에서는 △대한민국 마약류 중독 치료 실태 △필로폰·펜타닐 등 중추신경계 작용 약물의 중독 발생 기전 △뇌 보상회로 손상과 재발 메커니즘 △약물 및 행동 치료의 한계와 역할 △고집적 초음파(High-Intensity Focused Ultrasound, HIFU)를 이용한 신경외과적 중독 치료 기술의 국내외 적용 현황과 향후 전망



강연이 진행되고 있다. ©담록

등을 다뤘다.

장진우 교수는 "마약류 중독 환자들은 자신을 환자라고 인식하지 못하거나 치료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수술적 치료에 참여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실제로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도 치료 연구를 위한 환자 모집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약물 예방뿐 아니라 중독 치료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의학적 접근이 시급히 필요하다. 치료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필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상규 담록 사무총장은 "이번 강연은 장진우 교수님과 같은 국내 최고 전문가를 통해 마약류 중독을 단순 범죄나 도덕 문제로 보는 시각이 아니라, 뇌 질환으로 이해하고 다학제적 치료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학생들이 직접 느낄 수 있었던 귀한 자리이다. 담록은 앞으로도 전문가들과 협력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마약 예방·치료 교육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 한동대 상담대학원, 포항시와 협력해 ‘찾아가는 힐링카페’ 운영

한동대학교 상담  
대학원과 포항시 부  
모콜센터가 협력하여  
운영 중인 ‘찾아가는  
힐링카페’가 지역 부  
모들 사이에서 뜨거  
운 반응을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9월부터 시작된 현장형 심리상담 서비스로, 부모들이 카페 공간에서 편안하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상담은 장성동, 효자동, 초곡동, 오천읍 등 4곳 카페를 순회하며 매주 화요일, 1시간씩 진행된다. 상담은 전액 무료로, 11로 진행된다.

‘찾아가는 힐링카페’는 11월까지 총 11회차로 운영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7회차가 진행됐다. 참여 부모 30여 명은 프로그램에 대해 96%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

했다. 상담 주제로는 자녀와의 소통, 기질 이해, 사춘기 자녀 지도, 진로 고민, 경정 조절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부모는 “이런 기회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며 “누군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온기가 전해지고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가장 큰 특징은 상담 전공 교수와 전문 상담사가 직접 카페로 찾아가 상담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딱딱한 상담실 대신, 부모들이 카페에서 차 한 잔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부 카페는 프로그램 취지에 동참하며, 무료로 장소와 음료를 후원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가 부모의 심리적 돌봄에 함께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한동대학교 상담대학원 재학생들은

# 김정석 감독회장, 증경감독들에게 최근 입법의회 결과 설명



김정석 감독회장이 일영본부로 초청한 증경감독 원로목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독일보

## 일영본부로 21명 초청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김정석 감독회장이 역대 감독회장과 연회 감독을 역임하고 은퇴한 원로목사들을 일영본부로 초청해 본부 이전에 관해 설명하고 지난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를 동안 진행된 입법의회 결과를 공유했다.

5일 일영본부에서 가진 초청 행사에는 감독회장을 역임한 표용은 감독, 김진호

감독, 전용재 감독, 전명구 감독과 연회 감독을 역임한 원로목사들 17명을 합해 모두 21명이 참석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해 11월 종회실행부회의에서 본부 이전을 의결한 이후 올해 5월 일영본부로 이전을 완료한 후에 관해 설명하고 본부 이전에 관해 설명하고 지난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를 동안 진행된 입법의회 결과를 공유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해 11월 종회실행부회의에서 본부 이전을 의결한 이후 올해 5월 일영본부로 이전을 완료한 후에 관해 설명하고 본부 이전에 관해 설명하고 지난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를 동안 진행된 입법의회 결과를 공유했다.

대표로 답사한 김진호 감독(제25대 감

마치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도록 지원을 발휘한 김정석 감독회장에게 감사와 치하의 마음을 표하고 감리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부흥하도록 원로 지도자들이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표용은 감독(20대 감독회장 역임)의 축도로 모임을 마친 증경감독 원로목사들은 김정석 감독회장의 안내로 4층부터 1층까지 각 국을 비롯한 연회 사무실을 돌아봤다.

김진영 기자

## 뉴욕교협 정기총회, 회장 및 부회장 선출 불발

뉴욕지구한인교협의회(회장 하연행 목사)는 11월 6일 오전 10시 30분 프라미스교회에서 제51회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 및 부회장 선출을 위한 회무를 진행했다. 그러나 표결 결과 과반에 미치지 못해 회장 선출이 무산됐다.

이날 공천위원회(위원장 김명옥 목사)는 하연행 목사를 회장 후보로, 김용익 목사를 부회장 후보로 보고했다. 총회에

서는 공천위원회의 보고안을 가결할지를 두고 표결에 부쳤으나, 최종 24대 26으로 부결됐다. 과반(26표)에 2표가 부족한 결과였다.

하연행 목사의 연임에 대해 직접적인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은 아니지만, 현행 뉴욕교협 협약에는 ‘회장은 교단별로 매년 순번에 따라 선출한다’는 규정과 ‘같은 교단에서는 3년간 후보를 낼 수 없다’

는 조항이 있어, 이 해석에 따르면 동일 교단 소속 회장의 연임은 헌법상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일부 회원들은 “연임에 대한 명시적 금지 조항이 없으므로 투표로 결정하자”는 입장을 보였고, 반면 “현행 협약 구조상 같은 교단의 연속 후보 등록은 불법이 된다”는 의견이 맞섰다. 약 3시간 동안 공방이 이어진 끝에 결국 투표가 진행

됐다. 결과적으로 허 목사 연임안은 부결됐고, 회장 및 부회장 모두 선출되지 못했다.

하연행 목사는 공천위원회가 자신을 차기 회장 후보로 한 차례 더 내는데 대해 연임을 고사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이날 총회 자리에서 회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며 “이제는 내려놓고 싶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다만 교협의 정상화를 위해 본인의 거취를 회원들이 결정한다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이번 결과로 제51회 뉴욕교협은 차

기 회장을 정하지 못한 채 총회를 마쳤



뉴욕교협이 6일 제5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으나 차기 회장 및 부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채 폐회됐다. ©김대원 기자

## 뉴욕교협 헌법개정안 최종 부결… 회장 연임 조항 신설 무산

뉴욕지구한인교협의회(회장 하연행 목사)는 4일 교협 회관에서 헌법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속회를 열고 회무를 진행했다. 그러나 표결 결과 헌법개정안이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이번 헌법개정의 핵심은 ‘회장 연임 조항 신설’이었다. 교협은 지난 10월 25일 열렸던 임시총회가 고성과 소란으로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이날 다시 속회를 공고하고 회비 납부를 기준으로 한 엄격한 회원 자격을 적용해 회의를 진행했다.

공문을 통해 교협은 “11월 4일 임시총회 참석과 투표권은 50회기 회비를 납부한 회원교협에 한해 인정한다”며 “회비를 내지 않은 교회는 입장 자체를 불허하고, 회의 방해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날 회무에서는 회비 납부 조건을 충족한 교회들에만 투표권



뉴욕교협 임시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투표를 위해 2년간 납부한 회비를 기준으로 좌석을 좌우로 구분했다. ©김대원 기자

이부여됐지만, 회비 납부 요건이 되지 않은 교회에도 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고 일부 발언을 허락하는 등 일정 부분 참여 가능하도록 진행됐다.

이날 총회에는 회비 납부 소속 총 대 22명이 참석했으며, 헌법개정안은 무

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표결 결과 찬성 9 표에 그쳐 통과 기준인 3분의 2(15표)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헌법개정은 이뤄지지 못한 채, 교협은 11월 6일 정기총회를 결의했다. 한편 교협 집행부는 정기총회 역시 ‘최근 2년간 회비를 연속 납부한 교회에만 회원 자격과 투표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원 기자

## 제2차 한반도 통일 컨퍼런스, 통일의 현장 독일에서 열린다

‘통일, 그 현장을 가다’라는 주제로 개최 예정

대한민국 평화통일 국민문화축제 조직 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총재 황우여, 이사장 송기학)가 주관하는 제2차 한반도 통일 컨퍼런스가 오는 12월 3~11일 독일에서 진행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기다리는 통일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통일”이라는 슬로건으로 국내외에서 35년째 활동하고 있는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가 지난 2015년

한반도 분단 70주년 특별기획행사 일환으로, 독일 통일의 주역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통일, 그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서울과 판문점 등지에서 개최했던 제1차 한반도 통일 컨퍼런스 10주년을 맞아 금번에 제2차 컨퍼런스를 독일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전시하고 있다.

베를린장벽과 36주년과 독일평화통일 35주년, 그리고 우리민족교류협회 창립 3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기획행사 일환으로 진행되는 금번 행사는 특별히 독일 평화통의 도화선이 되었던 ‘월요평화기도 회’가 시작된 라이프치히 성 니콜라이 교

회를 방문하여 현지인들과 더불어 ‘제13회 한반도 평화와 통일희망 라이프치히 음악회’와 한반도 통일기원 기도회를 진행함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음악으로 승화시키고,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에 도약하게 되리라 기대된다.

더불어, 독일평화통일의 상징이며 그 현장인 베를린 장벽과 브란덴부르크문 등 통일관련 주요 유적지와, 성령의 역사로 최초의 개신교회가 된 해렌후드 베를린보트로프교회 등 종교 및 문화 유적지를 순례할 예정이다.

최승연 기자

## 다일공동체, 37번째 ‘다일의 날’… 소외 이웃과 함께 나눔의 축제

다일공동체가 오는 11월 11일, 창립 37주년을 맞아 ‘다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1988년 11월 11일 청량리에서 ‘나눔과 섬김’의 사역으로 시작된 다일공동체는 현재 11개국 22개 분원에서 ‘베풀’, ‘빵파’, ‘꿈파’ 사역을 이어가며 전 세계에 나눔의 정신을 확산하고 있다.

‘다일의 날’은 소외되고 지친 이웃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이번 기념행사는 동대문구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무의탁 어르신과 소외계층을 위해 마련됐다. 다일공동체는 “37년 전의 첫 마음을 기억하며,

목교회의 순가락난타, 한울시각장애인예술단의 합창, 그리고 트로트 가수 헝가리의 공연 등 다양한 축하 무대가 마련되어 풍성한 불가리리를 선사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11월 생신을 맞은 어르신들과 최고령 어르신을 초청해 따뜻한 생신잔치가 진행된다. 다일공동체는 약 700여 명분의 특식과 선물을 마련해 참석자들과 함께 나누며 감사와 사랑을 전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37년간 봉사와 후원으로 함께해온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감사패’ 증정식도 함께 열린다.

장지동 기자

**B E Y O N D  
ENTERTAINMENT  
E L E V A T I N G  
E X C I T E M E N T**

일상 속 색다른 즐거움이 있는 곳,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WALKERHILL**  
HOTELS & RESORTS

워커힐의 다채로운 콘텐츠와 함께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 보세요.

**MEET NEW ART @ VISTA**  
비스타 워커힐의 야외 가든, SKYARD에서  
최고의 뷰와 함께 세계적인 아티스트  
JAYSON ATIENZA의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ART PICNIC**  
워커힐의 아트 프로젝트 1단, 아이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예술과 함께하는 아트 피크닉을  
즐겨 보세요.

KakaoTalk 편스친구

카카오톡 편스친구 WALKERHILL

워커힐의 카카오톡 친구가 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이벤트 소식을 제일 먼저 받아 보세요.

www.walkerhill.com 문의 1670-0005



# 한국 선교 지도자들 “미전도종족 선교에 다시 집중하자”

KWMA, 제23회 한선지포서 UPG·UUPG 선교 사명 재확인…  
‘동반자적 선교 실천·다음 세대 계승·지속적인 네트워크’ 등 결의

한국선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대위임령을 따라 미전도종족 선교에 그동안 집중하지 못했음을 반성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을 향한 사역을 좌우선적인 사업으로 불들고 기자로 결의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주최로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경기도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열린 제23회 한국선교지도자포럼(한선지포) 마지막 날 밝표한 결의문에서는 미전도종족에 다시 선교의 초점을 맞추는 것 뿐 아니라, 대위임령 성취를 위한 협력과 동역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됐다.

UPG & UUPG(미전도종족·미접촉종족, 마 24:14)를 주제로 열린 올해 한선지포에는 교단 및 선교단체 지도자, 목회자와 선교사 등 140여 명이 참여했으며, 미

국 남침례교 해외선교부(IMB) 총재를 비롯한 IMB 리더십들이 초청돼 미전도종족 선교 동향과 전략, 협력 방안 등을 공유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이번 결의문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마 28:19~20)을 선교 사명으로 재확인하며,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종족을 향한 복음 전도의 사명이 한국교회의 최우선적 선교의 사명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교회가 미전도종족 선교에 집중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세계 선교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다시금 사명의식을 회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실제 한국교회는 1990년대 초부터 미전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UPG, UUPG 지역에서의 선교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삶의 선교가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 못했다. 또 2020년대에는 코로나 이후 미전도종족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가라앉았다.

참석자들은 “복음의 열정으로 세계 선교의 일선에서 미전도종족들을 향해 헌

신해 온 한국교회는 최근 선교사 파송과 현장 선교 전략에 있어서 미전도종족에 대한 선교적 관심과 집중성이 줄어들었음을 반성한다”며 “선교의 최종 완성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마 24:14)되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에서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계 7:9-10)임을 재차 확

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6가지 결의 내용과 2가지 액션 플랜을 제시했다. 이들은 먼저 “①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UPG & UUPG(미전도종족 & 미접촉종족) 선교 사명이 선교 트렌드를 초월한 잊어버린 영혼을 향한 선교의 본질적 사명임을 확인하고 교회와 단체, 교단에서 UPG & UUPG를 향한 사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함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또 “②UPG & UUPG 선교를 위해 교회와 단체, 목회자와 현장 선교사들의 협력과 동역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대위임령 성취를 위한 동반자적 선교의 실천을 강화하기에 힘쓰고 ③UPG & UUPG 선교를 위하여 현장 정보 수집, 업데이트 및 자료 공유에 단체와 선교사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한다”고 결의했다.

선교의 흐름을 이어갈 다음 세대 리더 양성의 중요성과 UPG & UUPG 출신 이주민 및 유학생 선교, 협력 선교의 중요성

도 강조되었다. 선교 지도자들은 “④UPG & UUPG 선교의 사명을 다음 세대가 계승하도록 힘쓰고 ⑤국내 이주민, 유학생들을 우리에게 다가온 UPG & UUPG임을 인식하여 전략적으로 사역하며 ⑥우리는 UPG & UUPG 선교를 위하여 교회와 단체가 기도와 관심으로 구체적 액션 플랜을 수립하도록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에 힘쓸 것”을 언급했다.

이번 결의의 액션 플랜으로는 ①UPG & UUPG 선교단체 라운드 테이블 모임과 UPG & UUPG 지역교회 라운드 테이블을 실시하고 ②(IMB의) GAPP 플랫폼 활용과 적용을 위한 세미나 실시가 포함됐다.

KWMA는 “급변하는 세계 선교의 흐름 속에서 한국교회가 미전도종족 선교라는 근본적이고 확실한 사명을 재인식하고, 향후 한국교회가 주구해야 할 선교의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지희 기자

##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上)

초대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 바울 신학의 삶의 정황은 선교 그 자체  
선교사의 삶이 곧 선교, ‘십자가 선교’ 정신의 회복이 시급

### 선교사를 위한 책 한 권 배안호 선교사의 책 사다리(2)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No Church without Mission)  
(방동섭, 생명의말씀사, 2010)

들어가는 말(서론)  
‘교회를 교회 되게, 신학을 신학 되게’, ‘신학과 선교학의 만남’  
“콘스탄틴 디제는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기독교 선교는 성공한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실패하였고 소수 종교로 전락하게 되었다.” 거시적 세계 교회사를 새롭게 보아야 한다.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생명의말씀사, 2010)는 한국교회의 선교학 교수들이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친사를 아끼지 않는 저서이다. 통쾌한 신학과 선교학의 만남이다.



이것이 바른 개혁주의 선교신학(Reformed Missiology)이다. 한국 교회 개혁주의 신학교 교수들의 추천사가 예사롭지 않다.

동료 교수들은 ‘21 세기 신학계에 가장 의미 있는 저서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가지고 가서 매년 1번씩 읽어야 할 책이다’, ‘누구나 선교를 말하면서 이 책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선교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책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갈망하던 책이다’, ‘선교의 개념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책은 지금까지 한국 신학계에 없었다’고 추천했다.

‘선교 없는 교회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는 언제나 선교를 숨 쉬며 살아왔으며, 선교하면서 존재했고 또한 선교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며 생명이다.’(방동섭)

방동섭 교수는 종신대, 종신대 신대원, 합동 신학대학원, 미국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그랜드래피즈 칼빈신학교(Calvin Theological Seminary), 잭슨의 개혁신학교(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1981년 미국에서 15년간 성경신학, 조직신학, 선교신학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합’(integration)연구했다. 선교학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을 연구하였기에 그의 선교학은 정체성이 독창적이면서 신선하다.

저자의 저서 <십자가군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입니다>(2001), <선교가 우리의 실존입니다>(2003), <영성을 깨운다>(2003), <위풍당당>(2008)은 선교적인 관점에서 임안을 접근했다. 백석대학교 기독신학대학원 선교학 주임교수, GMC(지구촌선교공동체) 설립 한국복음주의 선교신학회 부회장, KMQ(Korea Mission Quarterly) 편집위원장을 역임했다.

이 책은 전체 7부, 곧 ‘선교와 신학/선교와 성경/구약과 선교/신약과 선교/선교와 교회/선교와 전략/선교와 컨테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서평자는 신학이 선교와 임맞춤하는 저자의 비전에 따라 신학과 선교학을 통합된 하는 관점으로 본서의 핵심을 요약하면서 서평할 것이다.

1. 신학과 선교의 패러다임: 선교학의 독립성과 보완성 “선교는 신학의 어머니”

선교는 사실상 신학의 어머니다. 선교를 보는 시각은 신학적 입장에 따라 정의가 천차만별이다. 주후 1세기 신약시대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탄생했다. 당연히 교회가 시작될 때 오늘과 같은 신학이 존재하였을까? “교회의 신학은 교회가 주님의 명령대로 선교를 순종하는 과정에서, 또한 그 결과로 선교의 현장과 여러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품속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p. 18, 당연한 서술이 신학하게 느껴진다)

“선교는 신학의 어머니”(Mission is mother of theology, David Bosh)라고 했다. 주후 1세기 교회신학은 선교적 상황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았다. 하비 칸(Harvie M. Conn)은 “신학은 선교적인 반성(reflection) 바로 그 자체다”고 하였다. 그러기에 신학은 그러한 선교의 다양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속에서 점진적으로 태동된 것이다.

“하비 칸은 이에 대해 ‘프리 콘스탄틴 시대(the Pre-Constantine centries)의 신학적인 어젠다(agenda)는 세상 속에서 교회의 선교에 의해 형성되었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선교의 동기가 당시의 교부들로 하여금 기독론의 깊이 있는 연구를 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p. 19, 따라서 선교신학의 시작은 기독교 신학의 시작인 셈이다)

신약성경 27권은 사실상 선교의 문서들이다. 선교적 상황에서 기록되었다. 초대교회는 ‘선교하기’ 공동체였다. 바울 신

학도 엄밀하게 말하면 그의 신학의 “삶의 정황”(Sitz im Leben)이 선교 그 자체였음을 우리는 먼저 직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바울의 선교를 모르면 바울의 신학을 이해할 수 없다. 오늘날 신학도 마찬가지다. 선교를 모르는 신학은 참 신학일 수 없다. 또한 선교를 모르면 신학의 의미를 잊어버릴 수 있다.”(p. 21, 그러나 오늘날 신학교에서는 ‘바울 선교사는 없고 바울 신학만 남무’한다)

2. 성경적 선교: 선교의 동기/자세, ‘십자가 선교’와 통전적 선교(holistic mission)

2.1 “왜 선교하려고 하는가?”: 선교사 자신과 파송 교회의 선교 동기 점검  
올바른 선교운동은 언제나 성경적인 선명한 정당성과 동기의 순수성을 갖는 것이다.“왜 선교하려고 하는가?”이 질문에 파송 받은 선교사와 파송교회의 선교의 동기가 성경적이지 못하고 흐려지면 훤히 선교의 물결이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선교 현장은 한 마디로 각종 세계관이 부딪히는 영적 전쟁터다. ‘제국주의적 동기/문화적 동기/상업주의적 동기/교회 식민주의적 동기’ 등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선교의 동기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만일 선교사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통치하심을 온전히 구하지 않고 교회의 힘이나 국가의 경제력을 의존하거나, 교단의 패권주의나 선교단체의 공적을 앞세우는 선교를 시도한다면 결과는 불행하게도 또 다른 의미의 현대판 제국주

의 선교로 나타날 수 있다.”(p. 91)

18세기 영국교회 선교는 문화우월주의(cultural superiority) 선교였다. 하나님 나라가 서구 유럽 문화와 일치한다고 보았다. ‘복음 전파가 문명화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최근 선교계의 BAM(Business as Mission)은 선교지에서 ‘선교 비즈니스 확장’에만 몰입할 수 있다. 선교 현장에 토착교회(indigenous church)를 세운다고 하면서, 선교지에 설립하는 교회를 파송교회의 ‘지점교회(branch church)’로 강요한다면 ‘교회 식민주의’가 될 것이다. 선교사는 ‘파송교회의 지점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요, 그 지역(나라)의 토착교회, 곧 자립 교회를 세우는 자이다. 서평자는 지점교회들을 여러 선교 현장에서 목도하였다.

2.2 선교의 성경적 동기: ‘주님의 선교 명령 앞에 자발적 순종’  
성경적 선교 동기(4가지)는 순종의 동기, 사랑의 동기, 영광의 동기, 예배의 동기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동기를 먼저 보신다. 우리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를 왜 또 하고 있느냐?”고 되레 시비를 건다. 한 마디로, ‘빛진 마음’(롬 11:4)이 순종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교를 추진하는 능력이다. 선교 현신의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이다. 선교는 예배 회복 운동이다. 이런 선교의 동기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계속〉

배안호 영국 선교사(Peterahbae@gmail.com)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법정 의무 교육, 브릿지온이 여러분의 일터로 찾아갑니다!

브릿지온(Bridge On)은 문화·체험형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밀알복지재단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예술단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로 찾아가 웃음과 감동이 넘치는 공연과 전시를 전해드립니다.

문의 | 밀알복지재단 밀알문화예술센터

메일 | art@miral.org

전화 | 02-6411-3649

홈페이지 | 밀알문화예술센터.kr



자세히보기

밀알복지재단

밀알복지재단은 1993년 설립되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생애주기별 전문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 11개국에서 아동보육, 보건의료, 긴급구호 등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밀알복지재단은 ‘UN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협의적지위를 부여받아 종교, 국적, 인종,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활동합니다.

# “엘파서 대학살, 남수단 난민 위기 악화시켜… 국제사회 긴급 대응 필요”

수단 다르푸르 지역의 엘파서(El Fasher)에서 발생한 대학살로 인해 남수단 난민 위기가 한층 심화되고 있다고 국제 구호단체 크리스천에이드(Christian Aid)가 밝혔다.

위성사진과 현지 보도에 따르면 수단의 준군사 조직 신속지원군(RSF)이 10월 27일(이하 현지시간) 수단군으로부터 엘파서를 장악한 뒤 현지 병원에서 약 460명을 총격으로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천 명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 마을을 탈출하며 이미 수백만 명이 넘은 난민 행렬에 합류했다.

2023년 시작된 수단 내전으로 1,100만 명 이상

크리스천에이드 남수단 지부장 제임스 와니(James Wani)는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와의 인터뷰에서 “충돌 이후 이미 100만 명이 넘는 난민과 구호민이 남수단으로 유입됐다”며 “엘파서 함락 이후 사흘 만에 국경 지역 난민 유입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부 바른엘가잘 지역은 가장 가까운 입국 지점으로, 앞으로 더 많은 피난민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곳에서 들려오는 참혹한 이야기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2023년 시작된 수단 내전으로 1,100만 명 이상

이 집을 앓았으며, 이 중 약 860만 명은 국내 실향민 300만 명은 인접국으로 피신한 난민으로 추정된다. 유엔은 현재 수단을 “세계 최대 규모의 인도적 위기 지역”으로 규정했다.

와니 지부장은 “렌크(Renk)의 크리스천에이드 임시 수용소는 원래 4,000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현재 12,000명이 머물고 있다”며 “식량, 위생, 보호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어린 소녀들과 여성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 “남수단과 수단의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전 세계가 연대해야 한다”며 “기도와 더불

어 식량, 주거, 물, 교통 지원 등 가능한 모든 도움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크리스천에이드는 현지 파트너 단체 ‘휴먼리티연합(Coalition for Humanity)’과 협력해 현금 지원과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여성과 아동 등 취약계층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유엔 인권최고대표 폴커 터르크(Volker Türk)는 이번 학살을 “끔찍한 인권 유린”이라고 규정하며 RSF에 민간인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 통로 확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경 기자



수단 기독교인(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 ©오픈도어

## 월리 라이스 목사, 美남침례회 차기 회장 출마 선언

“우리 시대의 갱신을 위해”

미국 플로리다주 클리어워터의 갈보리 침례교회(Calvary Baptist Church) 목사 월리 라이스(Willy Rice, 62)가 내년 열릴 남침례회(SBC) 연차총회에서 회장 후보로 나설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라이스 목사는 지난 10월 31일(이하 현지시간)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교회는 언제나 개혁 중에 있다”며 “우리 시대의 갱신(renewal)을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마르틴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 논제를 붙인 종교개혁 기념일(Reformation Day)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교회는 끊임없이 수정과 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과정을 통해 새로워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남침례회에는 진지한 성찰과 겸손한 교정이 필요한 우려들이 존재한다”며 “이제는 새로운 회복과 갱신의 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6년 남침례회 연차총회는 내년 6월,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오렌지카운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라이스 목사는 40년 넘게 목회자로 사역해왔으며, 과거에도 SBC 회장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현 회장 클린트 프레슬리(Clint Pressley)는 2022년 라이스 목사를 추천하며 “그는 남침례회의 본질과 비전을 가장 잘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당시 라이스 목사가 속한 교회가 과거 성적 학대 전력이 있는 인물을 임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라이스는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상처를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다.

올해 열린 SBC 총회에서 라이스 목사는 윤리와 종교자유위원회(ERLC) 폐지를 제안하는 안건을 직접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ERLC를 수년간 옹호해왔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며 “외부 진보 성향 단체의 재정 지원과 연계 의혹이 있었지만 회개나



미국 플로리다 클리어워터 칼바리 침례교회의 월리 라이스 목사. ©YouTube/Calvary Church

관계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라이스 목사는 “ERLC를 완전히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새롭게 재정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총회 표결에서 56.89% 반대, 42.84% 찬성으로 부결됐다.

이에 대해 ERLC 전 회장(1988~2013) 겸 CP 편집위원인 리처드 랜드(Richard Land)는 “기관 자체는 해결책이 아니다”며 “논쟁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은 대화와 토론이지, 조직의 절단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테네시 머프리스버로의 원처치(One Church) 담임목사 스티브 윌리스(Steve Willis)는 ERLC의 친생명(pro-life) 사역을 언급하며 “ERLC 만큼 태아의 생명권을 적극적으로 수호한 단체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음파 장비를 임신 갈등 상담센터에 제공하는 등 실질적 사역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 귀중한 기관을 계속 지지하자”고 호소했다.

현재 SBC 회장인 프레슬리 목사는 2024년에 선출되어 연임 중이며, 규정상 내년에는 임기를 마친다. 이에 따라 2026년 총회에서는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라이스 목사는 “우리 교단은 개혁과 갱신을 통해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며 “그 여정에 자신이 헌신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 사마리아인의지갑, 허리케인 피해 입은 자메이카에 긴급 구호팀 파견

국제 구호단체 사마리아인의지갑(Samaritan's Purse)이 초강력 허리케인 ‘멜리사(Melissa)’로 큰 피해를 입은 자메이카에 재난대응팀(DART)과 대규모 구호 물자를 긴급 파견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카테고리 5급 허리케인 멜리사는 자메이카 전역에 막대한 피해를 남기며 현재까지 최소 1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많은 가옥이 파괴되고, 여전히 많은 지역이 정전 상태에 놓여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식수와 식량 부족이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됐다.

이번 폭풍은 기록상 카리브해 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자메이카뿐 아니라 아이티에서도 최소 30명이 사망했다.

사마리아인의지갑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전세기를 통해 구호 인력과 물자를 자메이카로 공수했으며, 추가 인력과 물자도 곧 도착할



허리케인 멜리사 이후 자메이카의 지상 피해를 담은 항공 영상. ©Facebook/Samaritan's Purse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허리케인의 세력이 빠르게 강해지면서 항공 수송을 준비해왔으며, 이번 구호 물자에는 정수 시스템, 태양광 조명, 임시 거주지 건축 자재 등이 포함됐다.

사마리아인의지갑 대표 프랭클린 그雷함(Franklin Graham) 목사는 성명을 통해 “허리케인

인 멜리사가 자메이카를 강타해 수만 가정이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망자들과 족들을 위해 깊이 애도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 팀은 폭풍이 상륙하기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으며, 지금은 생명을 살리는 구호 활동에 나서고 있다”며 “예수의 이름으로 자메이카 국민과 구호팀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 투입된 정수 시스템은 최대 1만 명에게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허리케인으로 초기에 구호품 반입이 어려웠지만, 현재는 킹스턴 국제공항의 운항이 재개되면서 구호 물자 수송이 점차 원활해지고 있다.

사마리아인의지갑은 자메이카 보건부와 협력하고 있으며, 현지 교회 250여 곳과 함께 가장 피해가 큰 지역 주민들에게 식수, 주거,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

이미경 기자

## 콥트 기독교 단체 “성 카타리나 수도원 보호하라”… 국제사회에 긴급 호소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인 인권 단체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인 성 카타리나 수도원(St. Catherine's Monastery)의 자치권을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의 기입을 촉구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인권단체 콥트 솔리더리티(Coptic Solidarity)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이집트 정부가 시나이 산 기슭에 위치한 1,500년 된 수도원의 통제권을 수도원의 수도사단 시나이 형제회(Brotherhood of Sinai Fathers)로부터 넘겨받으려는 합의를 추진 중”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올해 초, 이집트 법원은 수도원이 자리한 토지의 소유권을 수도원에서 이집트 정부로 이전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단체는 이번 조치가 수

도원의 독립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콥트 솔리더리티는 성명에서 “이러한 조치는 수도원의 자치권을 완전히 빼앗고, 국가의 관리 아래 두게 될 것”이라며 “일단 이 변화가 이루어지면 되돌릴 수 없고, 자치는 단순한 상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콥트 솔리더리티는 엘아나니 전 장관이 재임 당시 “아이로의 역사적 묘지 일부를 철거하고, 성 카타리나 수도원 주변에 대규모 관광 개발을 추진해 유산의 원형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단체 대표 카롤라인 드로스(Caroline Dross)는 성명을 통해 “보호 유산을 파괴한 인물이 이제 그 유산을 지키는 기관의 수장이 되는 것은 도저

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은 유네스코의 도덕적 신뢰성과 국제사회의 문화유산 수호 의지 를 시험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콥트 솔리더리티는 유네스코뿐 아니라 바티칸, 유럽연합(EU), 미국 등 국제사회에 성 카타리나 수도원의 역사적 자치권을 지키고, 이집트 정부가 문화유산 보존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해 달라고 호소했다.

성 카타리나 수도원은 6세기경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운영 수도원으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수도원은 수세기 동안 독립적인 종교 공동체로 인정받아 왔으며, 그리스 정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미경 기자

## 2025년! 동북아 중심, 도약과 비상!

미래 50년 혁신성장 가시화를 통해  
동북아 중심으로 거칠없이 비상하는 창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창원특례시

**2025년! 동북아 중심, 도약과 비상!**

미래 50년 혁신성장 가시화를 통해  
동북아 중심으로 거칠없이 비상하는 창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창원특례시

CHANGWON SPECIAL CITY

 **KNOC** 한국석유공사

# 자원영토 확장으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나갑니다

한국석유공사는 대한민국 동해 및 서·남해 지역에서 광범위한 석유탐사를 추진해 자원영토를 넓혀 나가는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석유공사는 에너지 수급에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 에너지 안보를 수호해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 한국, 원자력 잠수함 자체 건조 추진 공식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위성락 안보실장 “미국 아닌 한국 내 건조 비용 대비 효용 고려한 현실적 추진 방침”

정부가 추진 중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 사업과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 내에서 자체 건조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위 실장은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가 건조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원자력 잠수함 개발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감에서는 원자력 잠수함 도입의 실

효성과 막대한 비용 문제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필리조선소에서 운용한다면 유지비가 많이 들고 작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비용도 상당할 텐데 이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여러 염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충분히 감안해 현실적이고 비용 대비 효용이 맞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작전 환경과 수요에 적합한 잠수함을 자체적으로 건조할 계

획”이라며 독자 기술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필리조선소에 잠수함 시설을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조선소에 건조를 의뢰하는 것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자치 환상 속의 자주국방 주구로 흐르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위 실장은 “자주국방을 강조한다고 해서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은 여전히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 능력을 중시하지만, 그 틀 안에서 더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자주국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국방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전략적 무기체계 개발 구상 속에서 원자력 잠수함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형 핵잠 개발은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독자적인 방위 역량과 기술 자립을 상징하는 핵심 과제로 평가된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과 한미 원자력 협정 등 국제적 제약 요인이 여전히 존재해 실현 가능성은 두고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잠수함용 원자로 기술 개발, 안전성 확보, 그리고 핵확산 방지 체제와의 조율 등 다층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락 안보실장의 발언은 독자적인 핵잠 건조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용국 기자

## 안규백 국방장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지연 배경 설명

“원자력 추진 잠수함 조율 중… 조만간 결과 발표될 것” 전망



안규백 국방부 장관  
(사진)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가 예정됐던 관세 및 안보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의 공개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금명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양국 간 세부 조율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는 발표 지연의 배경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개발 논의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목했다. 안 장관

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가 대두되면서 미국 내 여러 부처 간에 조율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원잠 협력이 이번 한미 간 협의의 핵심 의제 중 하나임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장관은 이어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과 관련한 기술 협력 수준에 대해 “선체 건조와 원자로 제작은 한국이

담당하고, 핵연료는 미국이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수준에 다다랐다고 듣고 있으며,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의 기술력은 여론만 확보된다면 완성 단계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에도 달했다”며 “보통은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지만, 한국은 단축된 기간 내에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원잠 건조 장소에 대해서도 안 장관은 국내 추진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필리조선소는 관련 설비가 충분하지 않지만, 국내 기술력은 이미 완비돼 있다”며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합

리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내 독자 건조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한 발언으로, 원잠 개발이 해외 의존이 아닌 국내 기술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 장관은 미국 측의 협력 의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원잠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한국의 건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한미 간 군사 기술 협력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은밀성이 높아 어느 방향에서 나타날지 알 수 없다”며 “이론적으로 보면 김정은은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강조했다.

한편, 일부에서 제기되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나 ‘대북 억제력 약화’ 우려에 대해서도 안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 방위 지침에 따라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고, 한미 방위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합사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며 오히려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2028년까지 6개 구성군 사령부 체제가 완성되면 한미 연합 방위 구조는 한층 견고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용국 기자

## 레티놀 4X로, 단 7일만에 속부터 꽉 차오르는 밀도탄력

아이오페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

7일 만에 속부터 차올라  
4주 후 어려진 피부 나이

10.6%

불 탄력 개선

12.5%

모공부위 피부 탄력

12.2%

피부 탄력 총 개선



오늘부터 7일 후, 달라지는 피부 변화를 경험하세요!

IOPE

구매 문의 | 080-023-5454. 키카오实业 ‘아이오페’ 청남 판매처 | 전국 아리따움 및 올리브영 매장

| 사용 7일 후,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사용기간] 2023.01.25~2023.03.10 [사용대상] 성인 여성 30명 [사용기관] [주]글로벌미학연구센터 |

## 노사, 정년연장 합의 불발… ‘65세 법정 정년’ 놓고 팽팽한 대립

노동계는 연내 입법 촉구,  
경영계는 재고용 주장  
결정은 정치권으로 넘어가

2025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년연장을 둘러싼 노사 간 의견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결국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으며, 공은 정부와 여당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9일 현재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정부와 국회에 연내 법정 정년연장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비롯해 정년연장을 골자로 한 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단계적 65세 정년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년 연장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내 입법 추진을 약속하며 노동계 요구에 호응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법정 정년연장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시간을 끌는 일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미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고 입장 차가 뚜렷한 만큼, 추가 협의는 실의이 없다고 보고 있다.

논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등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는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경사노위는 지난 5월 공의위원회를 통해 ‘계속고용의무제’를 제시하며 입법 논의의 출발점을 마련했지만, 노동계는 해당 안이 정년 유지 수준에 머문다며 경영계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과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65세 법정 정년연장입법 연내통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던 모습. ©뉴시스

한편 민주당 특위에서도 7개월 동안 노사 협의가 진행됐지만, 법정 정년 상향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퇴직 후 재고용을 선호하는 경영계 간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5일 기자단 오찬 자리에서 “사측과의 연내 합의는 어렵다고 보고, 이제는 정치권과 직접 협의할 것”이라며 “결정권은 국회와 정부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역시 “노사 입장은 충분히 확인됐으며 더 이상의 접점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민주노총을 찾아 노동계의 ‘연내 입법’ 요구를 청취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연내 입법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간사 김주영 의원실 관계자도 “노사 협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 오는 18일 열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년연장안이 상정되길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법정 정년연장에 대해 여전히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들은 ‘퇴직 후 재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법적 강제보다는 자율적인 고용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노동계 모두 단계적 정년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경영계 주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은 핵심 과제는 임금체계 개편과 청년 일자리 문제다.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연장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청년층 고용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한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60~64세 근로자의 고용 비율이 연간 30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이 올해 4월 발표한 ‘초고령 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서도 임금체계 조정 없이 정년연장을 시행했던 2016년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고령 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평균 0.4~1.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고용 위축 우려가 현실적인 과제로 지적되는 이유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임금체계 개편 문제는 유연한 자세로 협의에 임할 것”이라며 “노동계도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년연장 논의는 결국 노사 협의 단계를 넘어 정치권의 결단을 기다리는 국면으로 진입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공약을 이행해 연내 입법을 완료하길 요구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과 청년층 고용 위축을 이유로 신종한 접근을 주장하고 있다. 이나래 기자

# 청년층 '쉬었음' 인구 급증... 통계 착시 속 고용시장 불균형 심화

실업률은 낮아졌지만, 청년 체감 고용은 악화...  
전문가 "노동시장 구조 개선 시급"

실업률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청년층의 현실은 다르다. 취업도 구직도 공부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곁보기에는 고용지표가 개선된 듯하지만 실제로는 청년 고용의 질적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년 3명 중 1명 이상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을 포기했다고 답했고, 이런 현상이 사회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8월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일거리 부족"을 이유로 든 응답도 9.9%로 0.7%포인트 상승했으며, '복학 준비나 휴학' 등의 사유도 10.9%에서 13.7%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쉬었음' 청년층의 증가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일자리 미스매치와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고 분석한다. 청년층이 기대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비정규직단가 저임금 일자리가 주를 이루는 현실에서 많은 청년이 노동시장 진입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노동시장 복귀 의지를 보이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1년 이내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20.4%였으며, 그중 20대는 43.4%, 30대는 46.5%로 높은 수



치를 나타냈다. 이는 상당수의 '쉬었음' 청년들이 언제든 일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이 같은 '쉬었음' 인구의 증가가 실업률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실업률은 일할 능력과 의사에 가깝다"며 "이들이 증가는 노동시장의 질적 문제를 보여주는 신호이자, 장기적으로 경제 생산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업률 계산에서 제외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지연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실업률 하락 요인 중 약 71%가 20대 '쉬었음' 인구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20대 쉬었음 인구가 지금보다 완만히 늘었을 경우, 현재 실업률은 최대 0.7%포인트 더 높았을 것"이라며 "쉬었음 청년의 증가는 고용 협조에 대한 착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쉬었음" 청년은 단순한 비경제활동인구가 아니라 잠재적 구직자에 가깝다"며 "이들이 증가는 노동시장의 질적 문제를 보여주는 신호이자, 장기적으로 경제 생산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실업률 하락의 상당 부분이 청년

층의 노동시장 이탈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약화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가능성에 회의적인 청년층이 구직을 포기하는 현상이 지속되면, 축소되는 인적 자원의 활용도가 낮아지고 사회통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쉬었음' 상태의 청년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실업률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구조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나라 기자

## 북미 첫 '한류박람회', K-뷰티·K-소비재로 현지 시장 공략 본격화

한류 열기, 소비재 산업으로 확장...  
코트라 "문화와 산업 잇는 수출 플랫폼으로 키울 것"

북미 지역 최초로 열린 '한류박람회' 현장은 K-뷰티 제품을 체험하려는 현지 소비자들과 바이어들로 빛 디밀 틈이 없었다. 화장품을 손등에 테스트하며 사진을 찍는 사람들, K-팝 무대에 환호하는 관객들로 행사장을 열기로 가득 찼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미국 뉴저지 아메리칸드림몰에서 '2025 뉴욕 한류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류의 열기를 소비재 산업으로 확장하고, K-콘텐츠와 연계한 수출 촉진을 목표로 기획됐다. 국내 중소중견 소비재 기업 100여 곳과 미국, 캐나다, 중남미 지역의 바이어 235개사가 참여해 북미 시장 공략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행사장에는 한국 제품을 체험하려는 현지인들의 긴 줄이 이어졌고, 북미 전역

적은 기업들을 위해 9개 전문 무역상사가 지원에 나섰으며, 기업당 평균 10건 이상의 바이어 미팅이 진행됐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온 여성 바이어는 "한국 화장품은 품질이 확실히 다르다"며 "주변에서도 K-콘텐츠를 통해 한국 제품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LA 지역에서 한국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 중인 교민 바이어 에솔리 전씨는 "2017년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 요즘은 유럽, 호주, 두바이 등에서도 주문이 온다"며 "현지 소비자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7일부터 8일까지는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수출상담회에는 월마트, H마트, 북미 최대 아시아식품 플랫폼 위이(Weee) 등 주요 유통업체 바이어들이 참여해 부스를 직접 둘러봤다. K-뷰티, K-푸드, 패션,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품목의 상담이 진행됐고, 일부 기업은 현장에서 계약 의향서를 주고받았다. 대한제분, 매일식품, 정샘물뷰티, 아이코닉스, 케이타운포유 등 참가 기업들은 K-콘텐츠와 연계한 브랜드 스토리텔링으로 주목을 받았다. 수출 경험이

다.

코트라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한류 마케팅을 수출 성장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연 1회 개최 중인 한류박람회를 2030년까지 연 4회로 확대하고, 롯데 '브랜드 엑스포', CJ '케이콘(KCON)' 등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인증 취득 지

원(최대 1억 원), 공동물류센터 확충(2025년 302개 → 2030년 400개),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확대(2030년 3000개 목표) 등 세 가지 지원 방안을 병행 추진한다.

한류 소비재 수출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식품이 전체의 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화장품은 K-콘텐츠의 인기를 발판으로 수출 다변화에 성공했다. 반면 패션 분야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 심화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됐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한국의 인지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해외 바이어의 방한이 지난해보다 70%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홍은혜 기자



미국 뉴저지주 아메리칸드림몰에서 열린 '2025 뉴욕 한류박람회'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판촉전에 참가한 아트박스 관계자들이 한복을 입고 관람객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지난 7일(현지시간) '2025 뉴욕 한류박람회' 기념 공연을 보기 위해 행사장을 찾은 현지 한류팬들 모습. ©뉴시스

## 한국, G7 국가 중 중간재 교역 비중 1위... 반도체 의존도 심화 우려

수출국 다변화에도 품목 집중은 가속화...  
경총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경쟁력 강화 필요"

한국의 중간재 수출입 비중이 주요 선진국(G7)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수출 대상국은 다양해졌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지면서 교역 구조의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기자총협회(경총)는 9일 발표한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입 집중도 국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이 G7 국가 중 중간재 교역 비중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전체 수출 중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67.6%, 수입에서의 비중은 50.5%로, 전체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같은 수치는 한국이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 반도체, 2차전지, 석유제품 등 중간재 형태로 제공한 뒤 이를 다시 수출하는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미국, 일본, 독일 등 주

이 두드려졌다. 그 결과 한국의 전체 교역 구조에서 '반도체 쏠림'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것이다.

경총은 이러한 구조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이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변수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마중 같을 심화와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외부 리스크로 인해 수출 감소나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간재 중심의 산업 구조가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경쟁력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산업 구조가 고부 가가치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중간재 비중이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반도체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특정 국가나 품목의 변화가 곧바로 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이 함께 안정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할 종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나라 기자



"THERE IS A BEAUTY THAT REMAINS WITH US AFTER WE'VE STOPPED LOOKING."

CORY RICHARDS,  
PHOTOGRAPHER AND EXPLORER, WEARS THE  
VACHERON CONSTANTIN OVERSEAS.

VACHERON CONSTANTIN  
GENÈVE | ONE OF  
NOT MANY.

# 우리 아이에게 ‘털없는 원숭이’라 부르는 망령된 교육으로부터 자녀를 구출하라!

노휘성 소장  
예스티칭연구소



◆그들은 우리 아이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가?  
『털 없는 원숭이』 이 책은 1967년에 데즈몬드 모리스에 의해 쓰여졌다. 이 책이 대중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간, 당신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영장류의 한 종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니 하는 주관적 오만함을 버리고 당신 속에 잠들어 있는 영장류의 본능대로 사십시오!’이다. 진화론자들은 다윈의 유산을 얼마나 그럴듯하고 멋드러지게 확대 재생산하여 후대에게 강력하게 물려주는지 모른다.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은 이 책의 어린이판 출간을 기념하여 특별 강연을 열고, e 알리미와 같은 학부모에게 학교 교육 정보를 알려주는 어플을 통해 행사를 홍보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순전하다. 어떤 사람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순결할 수는 없다.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가진 자라도 하나님의 지식을 능가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의 지혜가 모자라 그 누구에게 조언을 구할 일은 영원토록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들 때 반드시 승리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세상과 그들이 날마다 접하는 교육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있는 그대로 사실이 아니라, 성경에 쓰인 내용이라도 지금 우리의 발전된 생각에 맞춰 새롭게 해석해야 할 고대 문서라는 불신앙을 심는다.

◆내 아이에게 누가 김히 ‘털 없는 원숭이라고 부르는가?’

‘저는 오랫동안 동물과 인간을 연구해 온 동물학자입니다. 수십 년 전 인류의 기원을 새롭게 바라본 책 『털 없는 원숭이』를 썼지요. 동학나 모험담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화론을 담았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었다. 이미 우리의 5학년부터 고2까지의 자녀들은 그 글을 읽고 또 읽으며 문해력 향상을 위해 단어 찾기 해가면서 배웠다.

최재천 교수의 사상이 우리나라 전국민이 그것도 10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 꼭 배워야 할 건전하고 보편적이며 교육적인 것 맞나? 최재천 교수의 글에 의하면, 바퀴벌레는 지구촌 주민으로 인간보다 한참 위의 조상이고, 우리가 바퀴벌레를 때려 잡으면 공경해야 할 어르신을 흡씬 두들겨 팬 것이다.

‘인간은 지구의 막내예요. 최초의 생명체가 수십억 년에 걸쳐 다양하게 가지를 뻗으며 진화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생겨난 생물종일 뿐이지요?’(2015개정교육과정, 초등 4학년 국어 교과서 지문, 글·최재천)

세상도, 동물도, 인간도 오직 진화적 관점으로만, 유물론적 관점으로만 보게하는 세뇌교육! 그 정도가 눈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노골적이고 심각하게 편향적이다. 진화론은 지금까지 단 하나의 단세포 생물의 출현도 설명하지 못하는 가설이다. 단세포는 커녕 가능한 단백질 한 분자도 지적 존재의 인도 없이 무작위적인 화학반응으로 결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대 분자생물학이 드러내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진화 메커니즘의 부재와 증거적 취약성을 알리지 않고 있으며, 진화를 신봉하는 자들의 이야기는 베스트셀러로, 교과서로, 공적 기관의 주천과 알림으로 마구 퍼날리자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종국에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란 말인가? 창조를 지우면,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알파한 전술! 그들의 속내는 세상을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신들이 짓다 여기는 대로 장악하고 싶은 것이다. 사람들의 생각을 세속적 인본주의로 마음껏 요리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면 선도 악이 되고, 악도 선이 된다. “나는 소년

을 좋아했다”는 유발 하라리의 인터뷰 내용에는 그러한 진화론자들의 윤리적 의도가 다분히 드러난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동성애가 있다. 침팬지가 그 한 예다. 영장류의 섹스는 처음에 번식이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우정과 친밀감 구축, 긴장 완화를 위해서도 섹스한다.”(유발 하라리와 조선일보의 인터뷰에서)

왜 우리 아이들을 ‘털없는 원숭이’라고 부르고 싶은지 보이는가? 그래야 침팬지나 오랑우탄 같이 살아도 된다는 윤리관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인간이 왜 침팬지를 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지 배워야 한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진화론이 사실이고, 그래서 인간이 우연히 출현한 생물종에 불과하면 그런 관점은 합당한 것이다. 결국 이 모든 시도는 인간 스스로가 ‘죄’가 무엇인지 정하고 싶은 의도에 달아 있다. 선과 악을 스스로 정하려면, 선악과를 먹어도 죄가 아니어야 한다. 그러려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로 지어진 것이 아니어야 한다. 모든 거짓말이 참이 되려면 창조가 아니라, 진화여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법이 무력화된다.

◆‘바사르’를 키우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팔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래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리.”(창 6:2-3a)

김지찬 교수는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에서 ‘육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해 주고 있다. ‘육신’은 히브리어로 ‘바사르’인데, 살탕어리를 뜻한다. 성경에서 ‘바사르’의 용례는 인간의 몸,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 성기 등으로 쓰였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절에서 ‘바사르’는 ‘동물’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이에 비추어 ‘육신이 됨’의 뜻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회 없이 오직 몸의 필요와 쾌락만을 추구하며, 특별히 성적 만족에 도취되어 있는 본능적 상태로서 ‘동물이 됨’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동물과 다른 바가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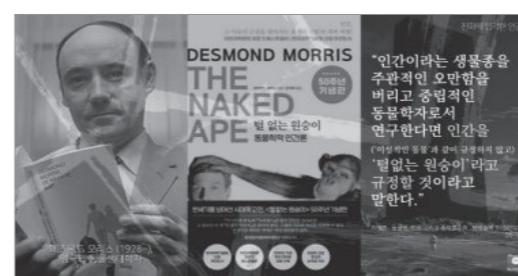
그런데,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흥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 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흥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마 24:37-39)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 사람들이 ‘바사르’가 되어 동물적인 삶을 산다면, 필연적으로 인간은 스스로를 동물의 한 종으로 여길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일하게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고 자신을 성찰하며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서 무료로 여는 강연. 책 제목부터 포스터에 있는 글귀까지 눈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진화론을 노골적으로 아이들의 존재에 이입시키고 있다. 이 행사를 학부모들에게 e알리미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쓰지 나치게 무신론 진화적 관점의 책과 강연이 대단히 권장할 것처럼 왜곡될 우려가 크다. ©노휘성 소장 제공



도서 ‘털 없는 원숭이’ ©노휘성 소장 제공

문이다. 자신이 ‘바사르’라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진화된 생물종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들 나름의 일관성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바사르야. 너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수십억 년 전 환경의 산물에 불과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다. 무슨 뜻인가? 이 시대가 바로 노아의 때가 되었다는 말이다! 모든 징조는 심판을 향해 가고 있으나 자신이 심판의 대상인 줄 알이치리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가리는 교육과 문화로 뒤틀인 시대 한 복판에 우리 다음 세대가 자라고 있다.

◆진리만이 답이다

진화론에는 첫 사람 아담이 없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하지 않게 된다. 진화론에서는 죽음이 죄의 삶이 아니고 ‘자연 현상’이다. 인류의 원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는데, 진화론에서는 인간이 존재하기 전 수

십억 년 동안 이미 죽음과 멸종이 수없이 반복되었다. 진화론 세계에서 인간은 죄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죄값을 속령받는 ‘구속’도 필요하지 않다. 다만, 사람의 전통 즉, 인간 문화 유산의 계승만 있을 뿐이다. 성경은 이를 헛된 속임수라고 말씀한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골 2:8)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포스터에 있었던 글귀를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가 어디서 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책이 가장 아린 ‘털 없는 원숭이’인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해하는 첫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말하는 ‘진짜 이야기’를 따라가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다. 이제 우리의 현명한 선택은 분명하다. 믿음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더욱 선명하게 더욱 열정적으로 가르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다.

이 진화론 시대에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바사르’로 길들이고 있음을 인식하고, 믿음의 가정과 교회가 성경하여 올바른 창조신앙을 교육해야 한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생명’은 자연 발생한 적이 없다. 생명은 언제나 생명으로부터만 나온다. 이는 미생물부터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모든 생물과 인간까지 예외없이 적용되는 사실이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부모로부터, 또는 모체로부터 나왔기에 첫 조상은 반드시 창조되었어야 한다. 다양한 생명체들의 첫 조상이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을 갖춰 암수를 짹지어 번식 가능하도록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창조’뿐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처음에 생명이 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리”(요 1:1-4)

우리 자녀들이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하려면, 망령된 진화론의 속임수로부터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보호해야 한다. 세상에 널리 있는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진리는 거짓으로 덮이지 않지만, 진리를 교육하지 않으면 가짜에게 영혼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미혹이 많은 시대, 진리의 허리를 떠고 믿음으로 이기는 세대를 키우는 그 시작이 창조신앙을 견고히 교육하는 것임을 명심하자. 그 기초 위에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심어 온갖 교훈에 밀려 도망하지 않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자.

기회를 캤,

가치를 캤,

가능성을 캤,

대한민국 희망을 캤 캤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캤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대한 가계의 기회를  
• 개인연수체육권 예금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 유동 저율증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 공유재산 개발 • OnBid 온비드

금융위원회 캤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교사 훈련.. LGBTQ‘충성도 테스트’전략

2023년에 통과된 AB 5 법안 시행 이루어져... 교회와 학부모 주목해야  
우리 자녀들과 기독교 커뮤니티에 주는 의미와 우리가 할 일은?



새라 김 사모  
TVNEXT  
설립자 및 공동 대표

\* 미국에서의 동성애 관련 법적 투쟁이지만, 한국과도 무관한 사안이 아니기에 미주 기독일보에 소개된 기고글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2023년에 통과된 AB 5 법안이 이제 캘리포니아 전역으로 새로운 교육 시행에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교회와 학부모들의 주목이 매우 필요합니다.

AB 5에 따라, 캘리포니아 학교 시스템은 이제부터 7-12학년 교사들과 기타 자격증(certified)을

소지한 학교 직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육이 시행됩니다. 이 새로운 교육 요건은 한층 더 하나님과 성경말씀을 부끄러워하고 불신하게 하는 요소들을 교사들에게 가르치도록 강요하는 것이기에, 모든 크리스천들, 교회,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미리미리 성경적 견해와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더 시급해졌습니다.

AB 5와 Education finance 교육재정(AB 130)법안들에 따라 의무화된 이 교육과정은 납세자들의 세금 \$2.4 million (240만 달러)로 지원되었지만, 법안 이름처럼 자녀들에게 안전한 지원을 제공하는 학교 프로그램이 절대로 아닙니다.

AB 5의 법명은 ‘Safe and Supportive School Act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교법’으로 LGBTQ+ 학생들을 위한 더 완벽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의무화하는 법입니다.

니다.

문제는, 교육과정 및 커리큘럼을 동성애 운동가들이 연합한 PRISM에서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 활동가 단체들이 개발한 이 교육은 생물학적 성별에 대한 기독교 관점을 가진 이들을 ‘동성애 혐오자’ 또는 ‘트랜스젠더 혐오자’로 규정 및 낙인을 찍게 강요합니다.

교사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과정 주제 및 요건 간수입니다.

1.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명사 사용할 것: 교사들은 각 학생이 다른 성 정체성 대명사를 선택하게 한 후, 학생이 선택한 대명사를 사용함으로써 “안전과 복지를 증진”해야 함.

2. “아성애주의는 편견”이라는 것을 가르칠 것: 이 성애 관계를 ‘정상’이라고 믿는 것은 “혐오와 차별의 한 형태”라고 세뇌하도록 강조.

3. 학생들의 (성정체성) 비밀을 철저히 부모들에 게 숨길 것: PRISM 교육과정은 교사들이 학생의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부모에게 공개하지 말라고 강조하며, 아이들은 가족으로부터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를 가졌다고 강조.

4. LGBTQ 성별 확인시키는 것을 의무화: 캘리포니아 교사들은 학생이 선택한 “그 정체성만이” 옳은 것으로 확인시키도록 강요 받으며, 여기에는 사회적, 법적, 의학적 성별 확인이 포함됨.

5. 교육이 끝난 후 교사들은 이라한(LGBTQ) 내용을 재확인하는 시험을 또 치러야 함

이 시험은 “연방 가정교육권 및 개인정보보호법 (FERPA: the Federal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이 학교가 아동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다고 거짓된 내용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FERPA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의 기록을 받아 볼 권리는 확실하게 보호되어 있지만, 국가가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정보를 숨기는 권리는 전혀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PRISM 교육 과정은 공립학교에서 트랜스젠더 이름 교육을 금지하는 미연방 지침을 노골적으로 위반합니다. 직접 교육계에서 일했던, 전직 초등학교 교장이자 현재 북부 캘리포니아 TK-8 학군의 학생 서비

스 담당 이사인 브렛 로링은 이런 기독교인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법안들이 시행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기독교 교육자들 중 한 명으로,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프로그램”이라며 “그들은 성별이 사회적 구성돌이며 생물학적 요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강요하고 그런 내용으로 학생들을 세뇌하고 있다” “만약 두 개의 성별만 존재한다면 믿으면, 저들은 당신을 트랜스포비라고 부르는데, 이는 기독교에 대한 모욕적 행위이며, 진정한 대화를 차단하는 비정상적 교육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AB 5는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크리스천 학생들과 교사들에게는 두려움을 조성하고, 신앙의 억압과 신앙 차별이 현실화되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더 강력히 무장시키고, 학교 교사들로부터 비상식적인 일을 겪었을 때, 반드시 부모에게 알리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려움이 아닌, 진리와 사랑으로 크리스천 교사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심 어린 조언과 진실한 말에 대한 성구



김정부 목사  
찬송하는교회 담임  
한국교회법학회 이사

### 1. 잠언 27장 6절

“친구의 책망(조언)은 충성에서 비롯된 것이지 만, 원수의 입맞춤은 속임수이다.” (쉬운성경)

‘책망’은 아프고 듣기 싫을 수 있지만, 진정한 친구는 상대방이 잘되기를 바라는 ‘충성(신실향)’ 때문에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해 줍니다.

◆ 적용: 진정한 조언은 듣는 이의 감정보다 성장과 유익을 우선하며, 조언하는 이의 동기가 순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반면, 아첨이나 거짓된 친절(원수의 입맞춤)은 결국 해를 입힙니다.

### 2.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르듯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혜로운 사람의 헤는 아픔을 치료하는 약과 같다.” (쉬운성경)

말의 파괴적인 힘과 치유적인 힘을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칼’처럼 상처를 주는 말은 무분별하고 성급한 말입니다.

◆ 적용: ‘지혜로운 사람의 헤’는 진실을 말하되, 상대의 상처를 싸매고 회복시키는 \*\*양약(치료제)\*\*처럼 사용됩니다. 이는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잠 15:28), 선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가르침과 연결됩니다.

### 3. 예베소서 4장 25절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만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나쁜 말(썩은 말)을 금하고, 말의 목적은 오직

가짜)뿐 아니라, ‘형제사랑’(필라델피아)을 언급합

니다. 이는 형제, 자매와 같이 친밀한 가족 관계에서 나타나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친밀성을 강조합니다.

2. 핵심 명령: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 ‘존경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티메)에서 유래된 단어로, ‘가치를 두다’, ‘예우롭게 여기다’, ‘귀히 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능력에 근거한 존경(Admiration, 존경심)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존중(Esteem, 존엄)을 의미합니다.

• ‘서로 먼저 하라’(프로에게오마이)는 “선두에 서다, 앞서가다”라는 뜻으로,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거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내가 먼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귀하게 대하는 능동적인 실천을 명령합니다.

• 주석: 공동체 내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이 명령을 실천할 때, 모두가 존중받고 인정받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는 경쟁적인 사회에서 역행하는 질서로,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을 본받는 태도입니다.

◆ 적용 예시: 일상생활에서의 존중 실천

- ① 직장 생활: ‘먼저 존경하라’

부하 직원의 작은 의견이라도 경청하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라고 존중하며 수용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지위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인격으로 대합니다.

② 가족 관계: ‘서로 다정하게 대하라’

배우자나 자녀의 감정이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수고 많았어”, “네 마음 이해해”라고 진심으로 인정하고 위로하는 말을 간넵니다.

③ 공동체 (교회/모임): ‘가치를 귀히 여기라’

나이, 배경, 신앙의 연륜 등 나와 다른 점에 대해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대신, 그 다행을 하나님

이 주신 은사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배울 점을 찾습니다.

◆ ‘경청과 침묵을 통한 존중’

진심 어린 조언과 존중은 말하는 것만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청과 침묵’에 대한 성구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또 다른 차원의 실천을 보여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 도 더디 하라” (야고보서 119)

◆ 강해 주석 및 적용 예시

1. 강해 주석

• ‘듣기는 속히 하고’: 이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입장에 빨리 공감하고 그들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진정으로 존중할 때만 가능합니다.

• ‘말하기는 더디 하며’: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성급하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거나, 상대방의 말을 끊고 성급한 판단이나 성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말을 더디 하는 것은 상대방을 충분히 고려하고 배려하는 존중의 시간입니다.

• ‘성내기도 더디 하라’: 성급한 분노는 인간의 의사 아닌 악에서 나오며 약 1:20, 관계를 파괴합니다. 듣기를 먼저 하고 말하기를 더디 하면, 감정을 통제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적용 예시

•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맞추며 듣습니다(듣기는 속히).

• 조언이 필요할 때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반박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다 듣고 숨을 고른 후 신중하게 답변합니다(말하기는 더디).

SAMJIN 삼진제약

발열

#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sup>®</sup> 쿨다운 정



상품 및 구입문의 : 080-082-1234 (수신자 부담)



# 의사·한의사·선교사·신학자, 손영규 시인의 ‘바람이 머물다간 자리’



조덕영 박사  
창조신학연구소 소장

조덕영 박사의  
기독교 시인을 만나다

[바람이 머물다간 자리]

바람이 머물다간 자리  
사랑이 심겨지고

사랑이 머물다간 자리  
소망이 쑥트고

소망이 머물다간 자리  
믿음이 열매 맺으니

정녕  
성령은 바람이아라

주님 보내신  
그 바람이아라

- 99. 6. 7. 한울교회에서



惠民 손영규 시인(사  
진)(1953~ )은 경북 경  
주生. 경희대 의대 및  
대학원을 졸업한 의학  
박사(M.D., Ph.D.)이다.

동·서 의학에 관심을  
가져 미국 LA에서 삼라한의대학원을 졸  
업하고, 미국 한의사(O.M.D.) 면허를 취득

하였다. 동서양의학과 선교 그리고 전인  
치유사역에 대한 탐구의 결과, 일반 은총  
으로서의 한의학과 성경의 조화를 이끌  
어낸 ‘기독교적 관점에서 한의학 들여다  
보기’라는 치유사역에서의 새로운 패러다

임을 도출하려는 간절한 마음 속 『황제  
내경과 성경』(예언 커뮤니케이션, 2014)이  
라는 독창적 저서를 펴내기도 했다.

손 시인은 이바인후과 전문의로 선교사  
로 부름 받아, 여러 신학공부를 했다.

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목사 안수  
를 받고, 총회세계선교회(GMS) 파송으로  
2001년 동아시아에 파송돼 사역했으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에서 GMS  
선교사 의료 멤버카이를 총괄하기도 했  
다.

의사·한의사·선교사·신학자의 삶을 산  
시인은 ‘慶州人’이라는 詩에서 ‘15년 동안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이사가서 고  
등학교(경복고)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  
하여 살다가, 외국에서 살다가 45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회상한다.

노년이 되어 고향에서 소망이비인후과  
의원을 연 손 목사는 경주기독의사회 지  
도목사 및 한국누기회 ‘새교회’ 협동목사  
를 거쳐 충효중앙교회 협동목사로 섭기  
고 있다. 그 공로로 지난 2024년 제36회  
경주시민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경주시는 손 목사가 2020년 세종도서  
로 선정된 〈코리아, 아직도 그대는 내 사  
랑!〉을 집필한 것에 이어 국빈자, 외국인  
노동자 무료진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자원봉사 실천, 〈황제내경과 성경〉 집필

로 세계 오지를 향한 무료봉사 한의사  
증가에 기여, 종체적 치유사역 등의 논문  
을 통해 사회적 치유 개념 확산 등에 공  
적이 크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손 목사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외할  
머니로부터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원  
자단’ 이야기를 귀가 따갑게 듣고 자랐다  
고 했다. 주님의 은혜로 의사가 되고, 목  
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기에 주님의 말  
씀에 인생을 걸고, 주님 말씀 따라 살다  
간 한국 초기 의료선교사들의 삶의 발자  
취를 따라 살기를 사모했다고 했다.

그는 1884년부터 불기 시작한 성령의  
바람은, 1907년에 온 평양을 훨씬들고, 1914  
년에는 전국을 휘돌아 불었다. 이 첫 30  
년 기간 동안, 성령의 그 바람 탓고 이 땅  
에 들어와서 이 백성을 사랑하여, 복음의  
씨앗을 심고, 물 주어 가꾸어 간 분들의  
삶의 이야기 듣기를 늘 좋아했다. 우리 주  
님 앞서 가신 그 험하고도 아름다운 길  
을 걸어가며, 그분들이 함께 부른 노래,  
“코리아, 그대는 아직도 내 사랑!”을 우리  
함께 부르며, 코리아를 넘어 열방으로 나

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했다.

그런 은혜에 관심을 가진 것은 언제부턴가까? 손 시인은 어린 시절부터

시집 한 권 가지는 것이 꿈이었으며 고교

시절 그 꿈은 커졌고, 대학생 시절 그 꿈

은 더 간절해졌다고 했다. 시인 조병화 시

인의 평이 실린 시가 경희대학교 신문에

실리며 그 꿈은 용기로 바뀌었으며 제 22

회 계간 국제문화 시인작가상 운문부문

시당선으로 등단했다. 모세, 드보라, 다

윗, 솔로몬처럼 손 시인도 믿음의 시인이

요 보통의 시인들이 유사하게 걸어온 詩

心의 여정을 지나온 셈이다.

김성구 박사(시인, 문학평론가, 국제문

학발행인, 철학박사)는 손 시인의 시집

『당신의 사랑』 평전에서 ‘은혜의 정원에

서 피어나는 천상의 꽃향기’라는 제목으

로 손 시인의 시에 대해, 계절의 변화를

시와 그림으로 표현한 목사의 자녀였던

노벨 문학상 수상자(1946) 헤르만 헷세에

벳대어 손 시인의 시도 ‘자신의 인생을 사

계절’로 표현했다고 했다. 특별히 헤민의

시에는 ‘성경을 삶의 텍스트로 설정하고

풍성하고 거룩한 새에덴의 삶이시길

그에 맞춰 살아가려는 온 정성이 보인다  
했다.

그렇다! 헤민의 시에는 손 시인 삶의 믿  
음의 사계절이 마치 수채화처럼 펼쳐진

다. 필자는 헤민의 시를 읽으며 경건, 삶,

은혜, 가족, 믿음, 소망, 사랑, 그리스도, 고

백, 주님, 세상, 치유, 은혜와 성령의 바람

이 수채화처럼 번지는 감동을 그저 온몸

으로 받는 느낌이었다. 헤민은 살아온 것

이 모두 감사요 믿음의 부모님에게서 태

어난 것이 감사요 사랑하는 아내를 주신

것이 감사요 선물로 받은 믿음의 두 아

들이 모두 목사가 된 것이 감사라 했으니

김성구 박사(시인, 문학평론가, 국제문

학발행인, 철학박사)는 손 시인의 시집

『당신의 사랑』 평전에서 ‘은혜의 정원에

서 피어나는 천상의 꽃향기’라는 제목으

로 손 시인의 시에 대해, 계절의 변화를

시와 그림으로 표현한 목사의 자녀였던

노벨 문학상 수상자(1946) 헤르만 헷세에

벳대어 손 시인의 시도 ‘자신의 인생을 사

계절’로 표현했다고 했다. 특별히 헤민의

시에는 ‘성경을 삶의 텍스트로 설정하고

풍성하고 거룩한 새에덴의 삶이시길

## 자유주의 신학의 발호



김병구 장로  
바른구원관 선교회

1.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와 본질  
자유주의 신학은 18~19세기 유럽 계몽  
주의의 영향 아래 태어났다. 인간 이성과  
경험을 절대화하고, 성경의 초자연적 권  
위를 부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역사적 인물의 상징'으로 축소시켰다. 이  
는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의 사상 수준  
으로 끌어내린 것으로, 결국 신앙의 중심  
을 하나님아닌 인간에게 옮겨 놓았다.  
이는 사조가 미국과 한국의 신학교에 스  
며들며, 복음의 초자연적 진리를 부정하  
고, 윤리적 인간주의와 사회 정의 중심  
의 복음으로 대체되었다.

2. 교회의 좌경화: 복음의 왜곡  
자유주의 신학이 확산된 교회는 점차  
성경적 진리를 잊고 세속 정치 이념을 복  
음으로 포장하기 시작했다. “가난한 자  
를 위한” 명분 아래, 구원의 본질인  
죄와 회개, 심자가 부활을 외면하고 사  
회운동과 평등 담론으로 대체했다.

3. 적그리스도 정치세력의 부상  
성경은 말세에 “적그리스도 세력”이 교  
회를 미혹하고 세상을 통제할 것이라 경  
고한다(요한일서 2:18, 데살로니가후서  
2:3-4). 자유주의 신학과 좌경화된 교회  
는 바로 이 세력의 영적 범위가 된다. 진  
리 대신 다원주의를, 구원 대신 포용을  
외치며, 죄를 좌라 부르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 적그리스도의 정치세력은 ‘사랑  
과 평등’의 언어로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며,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상대화 한다. 오늘날 서구 사회와  
일부 한국 교회의 현실이 그 경고의 성취  
로 드러나고 있다.

4. 깨어있는 성도들의 사명  
이 시대의 성도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  
니라 영적 분별자로 서야 한다. 자유주의  
신학의 미혹을 분별하고, 좌경화된 세상  
속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

교회는 다시금 초대교회의 순결한 복

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무장해야 한다.

## APEC 회의를 보고서(1)

김진홍 목사  
두레수도원



얼마 전 경주에서 아세아 태평양 지  
도자들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  
에 트럼프도 오고 시진핑도 와서 큰  
행사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점은 트럼프-이재명 회합  
이었고 시진핑-이재명 회합이었을 것  
입니다. 트럼프와의 회합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생존 문제가 걸린 한미 동  
맹 관계에 균열이 올까 염려 되어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합의 결과가 아쉬운 점들  
이 있긴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 달  
아란 마음이 듭니다. 이번 트럼프-이재  
명 만남이 나쁜 방향으로 흐르지 아  
니하고 좋은 방향으로 흐르게 된 데  
에는 유관 부서의 장관, 차관들이 지  
혜롭게 열정적으로 한국의 국익 우선  
으로 임하였기에 얻어진 열매라 여겨  
집니다.

그리고 가장 잘된 합의는 한국이 해  
협수합을 건조할 수 있게 한미 간에  
합의된 점입니다. 해무기에 대한 이런  
시작이 장차 한국의 안보 지향을 강  
화하는 데에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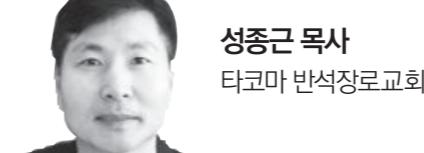
특히 산업통상부의 김정관 장관이  
프로답게 회담을 주도하여 바람직한  
결과가 있었다는 소문입니다. 트럼프  
가 출국하기 전 마지막 모임에서 김정  
관 장관을 칭찬하면서 〈He is tough,  
an incredible Negotiator〉라고 칭찬  
하였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고급 관  
료들 중에 이런 인재들이 있다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나라 장래에 희망을  
품게 하여 줍니다.

이번 한미 관계 협상의 자세한 내용  
은 나와 같은 일반 시민이 알기 어렵지  
만 그냥 느껴지는 바로는 몇 가지 바  
람직한 열매가 있었다 생각됩니다. 대  
표적인 예로 트럼프 측에서 경우 없이  
3500억 달러를 내라고 우격다짐으로  
다가왔지만 실무진들이 잘 대처하여  
3500억 달러를 내되 1500억 달러는  
조선 사업으로 투자하는 형식으로 하  
고 2000억 달러에 대하여는 200억 달  
러씩 10년간 분할하여 내기로 한 점은  
참으로 잘 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가장 잘된 합의는 한국이 해  
협수합을 건조할 수 있게 한미 간에  
합의된 점입니다. 해무기에 대한 이런  
시작이 장차 한국의 안보 지향을 강  
화하는 데에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 From Deep Dark to Bright Hope (어둠에서 빛으로)

성종근 목사  
타코마 반석장로교회



인생에는 밝을 때, 어둡 때가 있습니다.  
천하의 때와 일들을 주님이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깊은 어둠의 시기, 사망의 음침  
한 골짜기라도 낙심해서는 안됩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필요하듯, 인생이 힘  
들 때일수록 더 믿음과 소망의 주님이 필  
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사랑, 소망은  
세상의 것들에 의해 삼켜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소망과 생명의 빛이고  
성도는 세상의 소망과 빛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에 성도의 할 일  
은 소망을 전하고 심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우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  
되 은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벧전 3:15).

감사한 것은 지식, 은사, 비전은 사라져  
도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기 때문

에 칠흑 같은 어둠, 마른 뼈만 가득한 골  
짜기, 주름의 바다 한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성도에  
겐 소망이 있습니다.

요나가 바다 한가운데 물고기 뱃속 절  
망적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자들 굴에  
던져진 다니엘, 활활 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진 하사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인자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하심으로 소  
망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성도의 소망을 끊을 것이  
없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끊을 것이 없습  
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깊은 어둠, 절망  
의 속에도 빛과 생명과 소망되시는 예수  
님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들  
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칩니다. 마른 뼈  
같은 인생에 힘줄, 살과 생기를 대인하게  
하십시오.

## 성찬을 받기 전에

이민규 목사  
웨드밸웨이제일장로교회



성찬식을 생각해 봅니다. 성찬은 단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행위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실제로 공급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방편이라함은 이 의미를 기념하며 마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받으며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뿐 아니라 부활의 생명과 다시 오실 주님의 소망까지 함께 맛보게 됩니다. 성찬은 말씀과 함께할 때 더 풍성한 유익을 누립니다.

설교를 통해 복음을 듣고, 성찬을 통해 그 복음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며,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두 번째 설교이며, 말씀을 봄으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성찬은 회개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전 11:28)고 하셨습니다. 성찬은 죄를 숨긴 채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용서를 믿고, 새 삶을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성찬 전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면 "주님, 제 안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성찬은 또한 교제의 식탁입니다. 한 떡과 한 잔을 나누며 우리는 주안에서 한 가족임을 고백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 나이, 형편을 가진 우리가 주님의 한 몸을 먹고 마심으로 한 식구, 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성찬은 엄숙하지만 동시에 기쁨의 잔치입니다. 어린양의 혼인 장치를 미리 맛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성도의 성장을 위한 영적 양식입니다. 사람이 밥을 먹고 자라듯, 성도는

성찬을 통해 복음을 먹고 누리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갑니다. 그래서, 자주 모여 말씀과 성찬을 누리는 교회는 사랑과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랍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은혜의 통로 중 하나입니다.

이 시간,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피를 통해 마음이 새로워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이 자라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 내가 좋아하는 한 가나안 성도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원로목사  
KCMUSA 이사장

### 창 던지는 자의 실로암

'가나안 성도'란 교회에 "안나기"는 성도입니다. 교회당에 나가지는 않지만, 여전히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신자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마지막 임기에 팬데믹을 거치고, 성도의 출석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목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팬데믹은 많은 '가나안 성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한 가나안 성도는 제가 시무하던 교회에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분입니다. 부인만 열심히 교

회에 출석하시고 새벽기도회에도 나오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남편의 뒷가지 열심히 감당하셨습니다. 교회에 연말 행사가 있으면, 20분 정도 하는 세차권 수십장을 만들어 기증하시곤 했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의 남편 되신 가나안 성도님과 그나마 접촉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세차장을 운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도님은 아민 생활 40년이 넘도록 계속 세차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제가 그곳에 들을 때마다, 늘 차를 닦는 시간 30분 동안 늘 대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80대 후반인데, 체중은 제가 본 20년 동안 변함이 없고 건강도 잘 유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 가나안 성도를 통하여 세상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 권사님이 돌아가신 후 이야기를 나누다가, 권사님 생각에 눈물이 그렇그란 모습이 생각납니다.

2022년 말 퇴임을 얼마 앞두고, 성도님은

"세례를 받고 싶다"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세례식을 준비하여, 세사장 사무실에서 눈물의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놀랍게도 신앙고백을 하시고, 박수와 꽂다발 증정, 축하의 분위기 속에서 즐거워하셨습니다. "천국의 아내가 좋아할 것입니다." 퇴임 후 언젠가는 "목사님 설교는 늘 친切상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먹을 게 많아요"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제게 준 최고의 찬사입니다.

가나안 성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목회자와 혹은 주변 사람에게 실망과 상처를 받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실망형), 교회가 진정한 영적 성장이나 말씀 중심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등지하는 경우(성장 지향형), 제도나 교리 그리고 형식에 얹매이기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영적 탐색을 하려는 사람(자유 지향형), 교회의 정치개입, 세습, 물질주의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비판하는 중에 교회와 거리를 두는 경우(비판적 이탈형), 그리고 직장, 가정, 이사,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간 교회 출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상황적 중단형) 등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교회를 떠난 이유'에 따른 분류이나, 가나안 '성도'의 회복을 생각하면서 저는 좀 더 간단한 구분을 시도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향하는 가나안 성도'와 '교회를 등진 가나안 성도'의 두 경우입니다. 전자는 교회에 가까이하려는 구심적 성도이고 후자는 멀어지려는 원심적 성도입니다. 둘 중 어떤 경우라도 예수를 향한 영적 상승의 방향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나안 성도나 교회나 상승적 방향을 가진다면, 우리는 모두 결국 주 안에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 기독일보

[www.christiandaily.co.kr](http://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청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미주 기독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社 說

### '협중' 시위 징역형 처벌? 누구 위한 법인가

여당 국회의원이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격화되고 있는 '반중 시위'를 범으로 엄단하겠다는 뜻으로 비치는데 다른 나라를 모욕했다고 자국민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의도가 과잉 입법 수준을 넘어 매우 위험한 발상 이란 비판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지난 4일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등 기존 형법에 정한 형량을 대폭 높였다. 이 발

의안에 민주당 이광하·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사·박군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 의원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양 의원은 법안 발의 제안 이유에 "최근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육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반복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최근 격화하고 있는 반중 시위를 계기로 했다. 일례로 "개천절 협중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개,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꺼져라' 등 일명 '짱깨송'을 부르면서 각종 육설과 비속어를 날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의 구호를 외치거나 중국 국기를 찢는 등 과격한 도습으로 사회 문제로 된 건 사실이다. 경주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같은 반중 시위가 날로 격화하자 경찰은 명동 일대 반중 시위를 완전히 봉쇄하기도 했다.

시위대가 남의 나라 국기를 찢고 과격한 구호를 외치는 등 특정 국가에 대한 반대를 넘어 '혐오'로까지 변진 건 목적이 무엇이든 정당화될 수 없다. 특정 국가를 모욕하는 것이 일시적 감정 분풀이되는 될지언정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나갔을 때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된다는 걸 가정하면 자체하는 게 미망하다.

하지만 시위가 도를 넘었다고 국민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폭력을 동반한 시위의 경우 법으로 얼마든지 저지할 수 있는데도 처벌 수위가 악하다고 더 쎈 법을 만들겠다는 건 과잉법의 소지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시도라고 본다.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한 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다. 형법상 폭력 행위나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가 없어도 구호나 내뱉은 말만 가지고 처벌하겠다는 건 그야말로 위험한 발상이다. 헌법 제21조 1항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에 위배될 소지마지

다분하다.

시위대의 구호가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진보 성향의 단체들이 미국 대통령 사진을 찢고 성조기를 불태우는 과격 반미시위는 왜 모른 체하나.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일본인을 '쪽바리'라고 지칭하고 조국 대통령 민정 수석 같은 고위 공직자는 '죽창가' 운운하며 반일 혐오 감정을 부추기는데 앞장섰다. 그레놓고 중국을 겨냥한 시위만 쪼짝 짚어 징역형으로 다스리겠다고 하니 '내로남불'이란 말이 나오는 거다.

'협중' 시위는 그릇된 행동이지만 시위자만을 무조건 탓할 수도 없다. 우리 국민의 의사 속에 중국과 중국인이 오만하고 무례한 모습으로 각인된 것이 원인일까 때문이다.

중국은 광저우 아시안게임 직후 공안이 억류하던 수천명의 탈북민을 강제로 북송했다.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하며 비인도적인 강제 북송만은 맡아달라고 얘기해 요청했지만 "내정간섭"이라고 일축하며 끝내 반인륜적인 북송을 단행했던 거다.

사드 배치를 빌미로 우리나라에 대한 정치 외교적 보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사드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3불(不) 1한(限)' 즉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 동맹 불가와 미군 배치 사드 운용 제한까지 넣는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중국에게 민주당 정부가 굽종하는 듯한 자세로 일관한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반발 심리가 반중시위에 내포돼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부 보수 단체 회원들이 '협중' 시위를 벌이는 걸 좋게 받아들이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시위를 막겠다고 국민을 징역형으로 엄벌하겠다는 국회의원의 생각을 지지할 국민도 많지 않다고 본다.

특정국을 대상으로 한 '혐오' 시위는 그 대상이 어느 나라는 해당 국가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결국 우리 국민만 추락시킬 뿐이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교총 김종현 대표회장도 "고지 혐한 시위를 보며 우리 국민이 상실과 절망감을 느꼈듯 '협중' 시위 역시 중요와 갈등이라는 큰 부작용을 냉고 있다"면서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의 삶을 힘들게 할 뿐 아니라 국가 간 미래의 길을 위협하는 극단적 행동"의 자제를 당부한 바 있다.

다만 이 시안은 우리 사회가 아직 덜 성숙한 증거로 받아들이고 함께 노력하며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본다. 이걸 당장 틀어막겠다고 초현법적인 벌상을 내놓는 건 국민의 대표가 국민과 싸우려 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는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다. 국회가 이를 보호하는 편에 서야지 억압하는 데 끌려해서야 되겠는가. 더구나 특정 국가 편을 들거나 반대로 특정 국가에 불리하게 적용하는 법은 법 자체를 무력화할 뿐이다. 그런 법을 누가 지켜려 하겠나.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 국민 위에 굽임하도록 해선 안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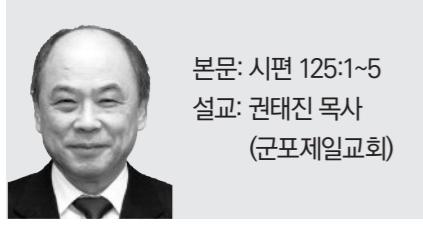
# 듣는 한 국민의 금융지킴이

거친 파도에도 언제나 듣는하게 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어떠한 금융위기에서도 예금보험공사가 여러분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여호와를 의지하라



본문: 시편 125:1~5  
설교: 권태진 목사  
(군포제일교회)

“믿어라, 싸워라, 이겨라, 순종하라, 감사하라”

창립의 달 10월을 보내며 지난날을 돌 아보니 사명이 생명이었음을 더욱 깨닫 게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훈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 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

게 함이라도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 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시125:1-5)

베르니의 〈나부코〉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히브리 민족이 BC 586년도에 예루살렘에 함락되 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요단강

의 아름다운 추억을 생각하며 울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유를 맛보고 경제 개발의 혜택을 누린 우리 후손들이 한강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부르지 않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히브리 백성이 실패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1.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훈들리지 않 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 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니니 이는 주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마7:24-25)

시련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성경의 인 물 중에도 시련을 극복한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 사울 왕, 삼손, 가룟 유다, 아나니아와 삼비라는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 노아, 다윗, 바울, 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성공했습니다. 인생에 불어오는 비바람과 창수는 매우 다양 합니다.

“세상의 열려와 재물의 유희과 기타 육 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마4:19)

이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힘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 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 3:16-17)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련을 이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훈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시125:1)

시온 산은 이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기한이 다하면 능력을 상실하나,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안전 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시125:2)

‘그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들입니다. 로마 제국도, 바벨론도,



앗수르도 무너졌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미련한 정지인, 공산주의자,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무너집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 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 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기사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행26:14)

복음을 믿는 사람은 훈들리지 않습니다. 자유한국은 기도하는 한국 교회가 있어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산상의 십자가에서 흔적 없이 사라질 줄 알았으나 부활하셨고 교회는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 개 그늘 아래에 감주사”(시17:8)

여호와의 보호는 영원하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2. 믿음의 사람들이 죄악에 손대지 않

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일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거와 같다 그려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시1:1-6)

복 있는 자는 거룩함으로 악법이나 악행이 그 환경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시125:3)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세력, 교만한 세력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말씀에서 있으면 악의 세력이 기생하지 못하고 소금과 빛이 있으면 상함과 어둠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불들면 말씀이 그 사람을 불들어 줌으로 안전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북쪽은 앗 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했습니다.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던 평양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에 빠짐으로 지옥과 같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불잡아 주십니다. 죄를 지으면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갑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멀壑려 하심이리”(요일3:8)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시125:4)

성경이 말하는 선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직 선하신 이는 예수님뿐이며 선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컬느냐 하나님 한 분 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마10:18)

3. 하나님의 책망은 사랑과 보호입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시125:5)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운동하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벼러두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 그를 책망하셨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책망도 없이 벼러두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

을 하려고 있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아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마26:50)

하나님의 책망은 사랑이요, 보호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책망하고 징계도 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 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잠13:24)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서 양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십니다.

“내가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시23:4)

믿음 생활을 하다가 받는 하나님의 연단은 사랑입니다. 고난이 성화의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서도 별립보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리”(빌4:11-12)

모든 연단 속에서 능력 주시는 주의 주권을 알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암탉의 품 안의 병아리는 어미 닭의 능력만큼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그 안에 있으면 무한 영원한 능력만큼 영원히 보호받습니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그 무엇도 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한 어떤 환경 속에도 더 보호받고 세워질을 기억하며 영원까지 보호받는 진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 ‘코로나피해보상특별법’ 신청 보름간 360여 건… “12월 본격 심의”

질병청, 10월 23일~11월 6일 동안 360건 접수  
재심 비율 65%… 앞서 ‘기각’ 나왔어도 심의 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심의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보름 동안 360여 건의 심의 신청이 접수됐다.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실

리스감염증-19 예방접종 등을 시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뒤 피해

를 입은 사람에 대해 정부가 피해보상 신청을 받고 심의 결과 의료비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기존에도 감염병예방법에 따

라 예방접종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여부를 심의했는데, 인과성 기준이 지난치게 엄격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 법률이 제정됐다.

이번 특별법에선 이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심의를 받았더라도 새로 심의를 받아 볼 수 있게 했다. 당시 심의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더라도 재심을 받도록 한 게 핵심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 후 접수된 심의 요청 360건 가운데 65%가량은 재심의 신청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는 이번에 처음으로 보상 여부를 심의 받는 사례다.

질병청은 ‘이상반응 인과성’ 법조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이달 종마련한 뒤 다음 달부터 신청 건에 대한 심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 제6조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해당 이상반응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이상반응이 원인불명이거나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가 모두 증명된 경우엔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심의에 걸리는 기간에 대해 “경증인 경우에 금방 심의를 할 수 있고 중증이나 복잡한 질환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개별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항산화 효과, 일반 마늘의 5배!

판매처 : 153 헬스코리아 주식회사

상품명: 153 새싹마늘 원산지: 국내산 표장재질: PET 보관방법: 구입 후 냉장보관 생산자: 두두야쿠아  
인증번호: 10307836호 학업점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203-9-10 소비자상담: 070-7895-1597  
\*부록 체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씻어서 드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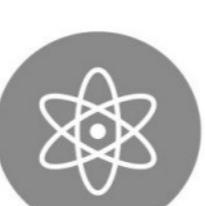
무농약  
(NON PESTICIDE)  
농림축산식품부

## 매일 먹는 마늘, 오늘부터 153새싹마늘로 바꿔보세요!



### 화학비료&병충 ZERO

물고기와 식물의  
공생 시스템으로 키운  
100% 친환경 새싹마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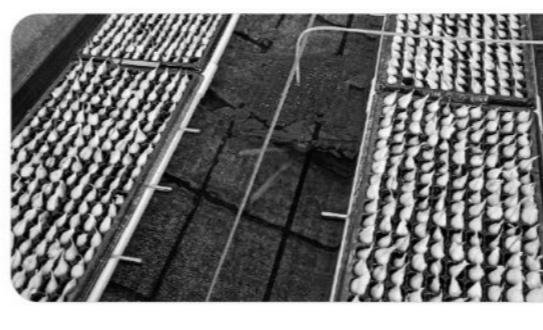
### 영양소의 극대화

영양소를 빠르게 흡수해  
높은 영양가와  
신선도를 자랑합니다.



###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법

물 사용량 및 농업 폐기물을  
최소화하여 환경과 사람에게  
건강한 농법입니다.



### 특허받은 아쿠아포닉스 재배 방식

깨끗한 물에서 화학비료와 병충해 없이  
건강한 새싹마늘만을 키우는 재배 방식입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극대화하였습니다.

특허번호 : 제10-1581729호

제품 구매하러 가기 →  
153새싹마늘 스마트스토어

N 153 새싹마늘

구매 문의 070-7895-1597



**목사, 전도사 후보생  
신·편입생 모집**  
<수시모집>

- 최고의 교수진 (정규 박사학위 소유자 강의)
- 본교 교수의 수준 높은 강의
- 전 과정 철저한 본교 교과목 수업 ◦ 쾌적한 캠퍼스 환경
- 여록 제도 있음. (수시접수)

## ◆ 모집과정

과정	학제	지원자격
신학부	(주/아/토요반) 8학기	• 세례를 받았거나 남녀 성인들이 사명이 투철한 자
신대원	(주/아/토요반) 4학기	• 본교가 인정하는 타 신학을 졸업하거나 증퇴한 자는 편입 가능.
학점은행제	월~토(10시~22시)	• 일반대학 이상 졸업자는 본 과정 3학년에 편입.

## ◆ 특전

- 방학 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함.
- 여록 제도가 잘 활성화 되어 있음.
- 기적인 장학제도로 인하여 학비가 저렴함.
- 본 과정은 서울캠퍼스와 인천캠퍼스가 동일 함.
- 모든 과정 주/야간 운영.
- 편목과정은 신대원에서 2학기 과정을 수료하면 됨.

## ◆ 입학 시 구비서류

- 입학원서(사진 1매 부착)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대원과정 지원자는 신학대학 또는 신학교졸업증명서 (졸업장사본) 1통
- 학점은행제 수업을 통하여 정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신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아동보육교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총회신학  
TEL.032-465-5511~2  
http://www.incs.or.kr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925-1 국제빌딩 2층, 5층(NCS평생교육원)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 [복지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가능]

1.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2. 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3. 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4. 주소: 충북 영동읍 479-8외 1건.
5. 토지: 2,756m<sup>2</sup> (833.69평)
6.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sup>2</sup>  
(139.75평) + a(40평)
7. 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낷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 [기타]

**※경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령으로 은퇴준비**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교회담보대출 :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 교회: 연 3.99%~5.49% 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셉 목사

문의전화: 010-9166-5600, 010-8652-5600  
TEL: 031-439-5555 FAX: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moon4903012@hanmail.net

## 오직 기독교의 바른 신앙을 갖고자 하는 신자들을 위한 말씀(30)

‘바른예수선교회’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바르게 전하는 단체입니다. 전 세계의 인류가 타고 있는 기차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로’ 위를 달려야 합니다. 유대 민족의 ‘여호와 신’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절대 아닙니다.

예수는 ‘절대 이치’의 신분으로 청세 전부터 이미 계셨고, 청조주 하나님께서 만민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르쳐야 하고, 오직 예수를 닮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만약 예수 외에 다른 것(다른 신이나 성공당 등)을 가르치면 이를 가르치는 자들이 이것을 배우고자 모이는 자들은 모두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그리스도인들이 대축제일로 여기며,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노래 부르며 친양하지만, 정확한 예수의 생일을 아는 사람은 없지요. ‘생일’을 모른다고 하서 탄생을 무시하는 아니 됩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이니까 어느 날을 정하여 특별히 축하하고 기념하는 일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달리 생각을 해 보면,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정확히 모르는 것이 더욱 큰 뜻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심령 속에서 태어나셔야 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일생의 모든 날이 ‘성탄일’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년 중 하루, 12월 25일만을 ‘성탄일’이라고 믿고, 그날만 그리스도의 강생을 축하하는 교인들은 참 성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유명 정치인은 평소의 생활(정치 행위 등)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긋나게 많이 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에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는가 하면, 불교 사찰에 가서는 ‘부처님의 은혜’로 이인증 출세하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때로 성탄절뿐만 아니라를 친양하는 까지 신임인일뿐입니다. 거짓 신임인들이 소위 지도자가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도자, 의사전적 의미는 ‘대중을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오늘날 거짓 지도자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겠습니까? 정치계요 종교계, 특히 교회 사회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눈먼 소경’, 이 된 채 민중을 지도한다면 민중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웃음을 같이하시는 분들의 광고 성원을 바랍니다.  
광고 성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관 서적 [예수는 누구인가], [복음에 대한 해석학적 고찰]을  
원하시면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바른예수선교회** (김한규 010-4017-8696)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령길 22-38  
광고 성원계좌: 농협 3521241-2400-83 김한규

[사]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1995년 개척하여 2번의 건축을하고 30년 동안 부흥·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부흥회

**부흥회 지원**

**강사 약력**

**방향 및 성령의 역사**

**신청 방법**

**한샘 교회**

20년동안 1000회 이상 부흥집회 인도  
한샘교회 담임목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사) 현국기독교부흥협의회 56대 대표회장  
현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Good TV 부흥선교협의회 대표회장

1995. 9 개척  
2000. 4 1차 성전건축  
2008. 1 2차 성전건축

철저히 개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개교회의 목회방침에 따라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짐  
학생, 청년이 꿈을 꾸고, 길이 열리며 부흥·성장함  
영·육·물질의 문제가 해결,  
기둥이 세워지고 축복의 증거가 나타남  
사탄의 역사가 끝어짐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낙도·오지교회  
3無부흥회:  
사례, 숙소, 식사

이승현 목사: 010-8913-7777  
한샘교회: 032-512-3375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바산동  
교회 소속

##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른신께 꽤 적은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께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 소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모십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 †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세요 †

##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 교육

- 외국어 성경 생생한 원어 발음
- 해외 기독교 서적도 쉽게 번역
- 스캔, 음성, 사진 3가지 방식으로 통 번역
- 영어, 국어, 한자 전자사전 기능으로 문해력 도움

## 신학생들과 해외 사역자들에게도 유용

- WiFi 없이 9개 언어 오지에서도 완벽 작동
- 선교지에서도 언어 장벽 해결
-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안정적 사용
- 60개 언어로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 전파

**† 독자 특별 혜택  
정상가 398,000 → 할인가 259,000원  
문의 010-9965-0961**

빠른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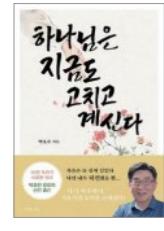
**AI보카펜만의  
독보적인 5가지 차별점**

1. 4가지 사전으로 영어, 국어+문해력  
콜린스 영역사전, YBM영한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에센스한자사전
2. 인터넷없이도 9가지 언어 번역
3. 60개 언어 지원 - 진정한 글로벌 기기
4. SD카드 확장 - 무한 성장 가능
5. 36,000자 토플, 토익 등 대용량 단어장

**AI Voca Pen**  
국내 최초 생성형 AI 언어 번역기 - 보카펜



# 신간 하나님은 지금도 고치고 계신다



믿음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조용히 무너진다. 눈물이 사리지고, 감격이 식고, 신앙은 어느새 습관으로 변해버린다. 조용히 교회를 드나들지만 마음은 떠날라 있다. 박효진 장로의 간증집 〈하나님은 지금도 고치고 계신다〉는 바로 그 잊어버린 은혜를 다시 깨우는 책이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간증들, 이 책은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통해 독자에게 다시 살아 있는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초대한다.

책의 첫장을 열면, 믿음이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저자는 "하나님은 절망의 밭밭에서 한 사람의 마음을 고치고, 믿음을 일으키고, 삶을 새롭게 하신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그 고백을 뒷받침하

듯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을 증언한다. 이 책은 감정적인 이야기 모음이 아니라, 저자가 삶에서 목격한 하나님의 역사를 담은 실제 간증 모음집이다. 군관 한복판에서 무당이 작두 위에서 밤이 배이는 사건, 귀신 들린 여인이 방안 기도 가운데 해방되는 장면, 접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존재만으로 접과가 흐트러지는 이야기 등 이 모든 장면들은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을 연상시킬 만큼 생생하다.

저자는 "악한 영이 사리지고, 병든 몸이 치유되고, 절망하던 영혼이 살아나는 현장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보고 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한다.

책 속에서 저자는 '간증의 본질'에 대해서도 강하게 일침을 놓는다. "간증 속에 '나(0)'가 열 번 나오면, 그것은 간증이

아닙니다. 간증은 '그분(He)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모든 신앙인의 방향을 바로잡는다. 진정한 간증은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책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치고 계신다〉는 무너진 신앙, 식어버린 마음, 익숙함에 젖은 믿음을 다시 일깨우는 책이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독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음을 체험하게 된다. 믿음이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지만, 그 결단의 현장에는 언제나 살아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책은 ▲신앙의 감격을 잊어버린 성도 ▲기적과 치유의 현장을 통해 믿음을 회복하기 원하는 독자 ▲간증과 성령의 역사를 성경적 시각으로 다시 보고 싶은 목회자·리더 ▲절망의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천된다. 최승연 기자

## 신간 사람이 선물이다(무선판)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웃는다. 사람이 가장 힘들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하다.

조정민 목사(베이직교회 담임)의 베스트셀러 〈사람이 선물이다〉가 아담한 무선판으로 새롭게 출간됐다.

이 책은 짧지만 깊은 140자 메시지 속에 삶과 신앙, 인간 관계의 본질을 깨뚫는 통찰을 담은 희망 잠연록이다. 인생의 방향을 잊은 이들에게, 혹은 누군가의 한마디 위로가 간절한 이들에게 이 책은 짧은 문장으로 마음을 일으키는 '은혜의 메모'가 되어 준다.

조정민 목사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고백한다. "일생을 돌 아보면 인간의 기억은 운동 사람이다. 그 중 가장 강렬한 기억은 빛처럼 다가온 사람이다. 인생의 길이 달라졌고, 품성

이 바뀌었고, 삶의 흔적이 새로워졌다.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재물이 아니다. 사람이다."

이처럼 책은 단순한 관계론이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한 신앙적 성찰로 가득하다. 그는 '사람다움을 잊은 시대에 다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회복하자고 말한다. 이웃이 곧 내 인생의 교과서이며,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일하신다는 고백이 책 전체를 관통한다.

〈사람이 선물이다〉의 강점은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다. 예를 들어, "쉼은 당신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쉼이 당신을 지킵니다", "겸손은 나를 거름으로 묻어야 피는 꽃입니다", "생각은 현실의 씨앗입니다. 절망은 희망의 뿌리입니다." 이 짧은 문장들은 마치 잡언처럼 마음에 오래 남는다.

그의 글은 교훈적이지만 결코 딱딱하지 않다. 삶의 경험과 신앙의 지혜가 녹아 있는 문장은 독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파고든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묵상 노트처럼, 하루의 기도로 이어지는 문장들이다.

저자는 돈, 건강, 명예를 행복의 조건으로 삼는 세대에게 이렇게 말한다. "행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한 인디언 마을의 체벌은, 주민들이 그 사람의 가장 좋았던 점을 한마디씩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집에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그는 일상 속에서 발견한 이야기로 인간의 본질과 관계의 회복을 묵상하게 한다. 때로는 가슴 아픈 통찰로, 때로는 미소 짓게 하는 지혜로 독자를 이끈다. 그는 '사람을 통해 다시 배우는 인생의 신학'을 제시한다.

책의 마지막에서 저자는 이렇게 적는다. "오늘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 생각이 내일도 나를 그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내 몸을 끌고 다니는 그 생각을 내가 끌고 다니는 것이 자유입니다." 최승연 기자

## 11월, 작가들의 말말말



빌립보서를 읽을 때,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큰 사랑을 받은 신앙의 책을 만난다. 잠시 생각해보아도, 빌립보서는 다음과 같은 익숙한 구절들을 떠올릴 수 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빌 1:6),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이리"(빌 1:21), "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 3:14). 또 빌립보서 중의 부분인 감사의 교리 자리잡은 2:6-11의 이른바 '그리스도 찬송가'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연구되며, 신학적으로 가장 엄격한 구절 중 하나이다. 실제로 빌립보서는 전체를 "성양 편지"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풍성하고 정성스럽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빌립보서는 신앙을 위한 격려로 토대가 되고, 힘든 시기에 용기를 주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힘을 주는 원천이다.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를 심음처럼, 앞, 뒤, 옆으로 우리가 삼부질 삼부질 빌립보서의 연구와 만남 가치가 있는 책이 들려 있다.

조지 H. 거스리 '강해로 푸는 빌립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내 아들을, 내 딸을 어떻다고 하실까? 그리고 내 남편 또는 내 아내를 하나님께서 어떻다고 하실까? 또 다른 말로 질문을 바꾸어 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실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크리스천이라면 이 질문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이며, 그리스도의 종이요, 복음의 일꾼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천국 시민으로서,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4절에 보니 주의 목적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첩 같을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For a thousand years in your sight are like a day that has just gone by, or like a watch in the night). 이처럼 짧디짧은 우리의 순간적인 순례의 여정을 마치고 영원불멸의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손창건 '성령 체험 새벽예배 9일 예배서'

## 조기 경쟁에 내몰린 아이들, '4세 고시'의 그늘

"공부만 잘하는 괴물로 키울 수는 없습니다"가 던지는 깊은 성찰



한국 사회에서 '4세 고시'라는 말이 등장 했다. 영어유치원 입학시험이나 레벨 테스트를 일컫는 신조어로, 이제는 네 살 어린 아이들까지 경쟁의 전선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약을 복용하며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늘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아동·청소년 환자 수도 최근 4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쟁이 일상화된 사회가 아이들에게까지 불안을 전이시키며, 그 고통은 점점 더 일찍, 더 깊게 스며들고 있다.

7세는 물론 4세에게까지 '고시'라는 이름의 조기 경쟁이 강요되는 현실은, 청소년기를 넘어 유아 우울증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사람의 운전한 성인

으로 아이를 키워내는 과정이 초경쟁 사회 대한민국에서는 몇 배의 고통으로 다가오며, 부모들의 한숨 또한 그만큼 깊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경면으로 마주한 책 『공부만 잘하는 괴물로 키울 수는 없습니다』(나비의 활주로)는 자녀가 단순히 성적만 잘 받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줄 아는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돋는 '참교육'의 길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한 교육 지침서가 아니다. 저자 소피 김민영은 세 아이를 키우며 자신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라 성적에 집착하는 괴물로 변해가고 있음을 깨달았고, 이후 아이뿐 아니라 자신을 위한 교육의 본질을 새롭게 찾아가는 여정을 기록했다. 그 여정은 고백처럼 솔직하고, 부모로서의 자아를 돌아보게 하는 깊은 울림을 남긴다.

저자는 자녀 교육에 있어 부모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며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았다. 그는 "아이를 대신해 결정하기보다, 아이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돋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임을 강조한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자녀들의 태도 변화와 성숙은 부모들에게 잔잔하면서도 강한 메시지를 전한다. 경쟁 중심의 교육을 벗어나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아닌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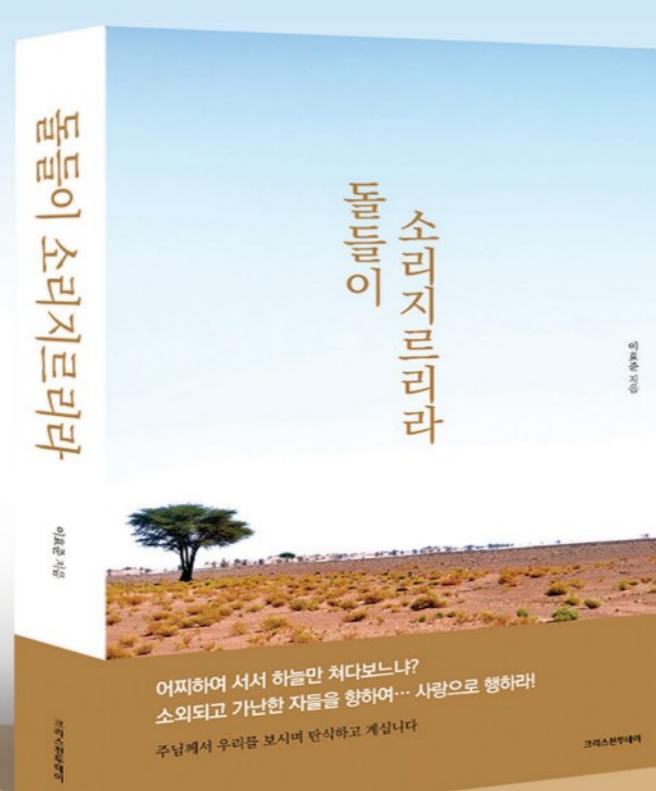
책은 또한 한국 사회의 경쟁 교육에 길들여진 부모 세대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저자는 "우리 사회의 희망은 정부나 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온 우리가 그 시스템을 거부하고 바꾸려는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희망의 시작은 '아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바뀌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나래 기자



내 생각에 겸손의 가장 확실한 징후 중 하나는 모든 자제와 통제 욕구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다. 겸손은 아무에게 아무것도 강요할 마음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다그치는 자세는 겸손한 마음에 어긋난다. 겸손은 우호적인 자세로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준다. 겸손한 이들에게는 무의식에 가까운 쾌활함이 있는 것 같다. 아마도 이는 자케야 할 인간적 평판도 없고, 평판을 쌓아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낼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 힘으로는 겸손을 얻을 수 없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도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분의 주도권을 우리가 이끌어 낼 수는 없다. 결국 겸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지만 우리도 겸손을 은혜로 받을 준비는 할 수 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면 된다. 겸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내 말이 맞는다면, 겸손이 정말 강하다는 확신도 가능해진다. 겸손은 교만의 굴레마저도 쭉어 버릴 만큼 강하다.

리처드 포스터 '겸손을 배우다'

## 크리스천투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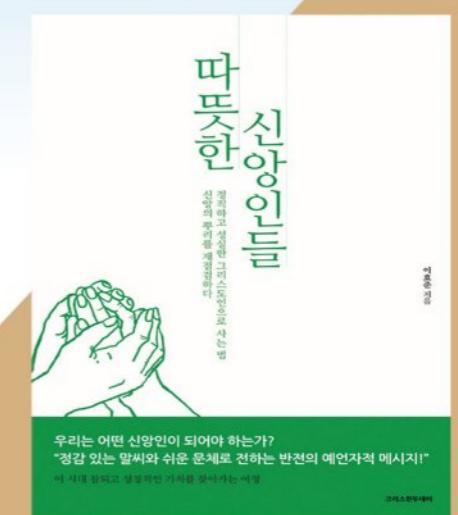
##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추천사

장로님께서 질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경갑 정교(구세군 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춘일 목사(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 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울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창원내산교회)



## 권혁승 칼럼 영원한 안식의 확신과 그 근거

날마다 말씀 따라 새롭게(112)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시 23:6)

시편 23편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라는 확신으로 끝난다. 여기에서의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소를 가리킨다. 유목민의 조리한 천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그 의미가 바뀌었다. 이것은 성전의 중요성이 외적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에 있음을 보여 준다.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은, 광야에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는 성전을 바라보는 신앙, 곧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는 것이다. 신앙 자체

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 땅에서의 삶에 충실하면서 영원한 안식의 미래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 현실과 이상, 실제와 소망이라는 양면성을 지닌다.

그렇다면 삶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신앙고백과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는 확신은 어떤 근거 위에 세워진 것일까? 그것은 결코 우리 자신이 아니다. 시편 23편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강조한다. 그런 점에서 시편 23편은 그런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감사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다.

‘선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투브’이다. 이 단어의 기본적 의미는 ‘좋음’ ‘선’ ‘유익함’인데, 여기에서 ‘유쾌함’ ‘호의’ ‘옳음’ ‘행복함’ 등의 다양한 의미가 파생되었다. 또한 이 단어는 실제적인 것 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것도 포함하고 있어서 그 용례가 매우 광범위하다. 그러나 ‘투브’로 표현된 하나님의 선하심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구원과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신다는 뜻이다(사 63:7; 시 145:7; 놀 9:25).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선

하심은 관대하심이나 구원의 감격을 베풀어 주심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자하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헤세드’이다. ‘헤세드’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인자’ ‘자비’ ‘사랑’ ‘친절’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헤세드’의 기본적인 의미는 약속에 대한 성실성,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 주신다는 뜻이다. 그래서 영어성경에서는 ‘헤세드’를 stedfast love(변함없는 사랑), unfailing love(실망시키지 않는 사랑), lovingkindness(자비로운 사랑), mercy(자비)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비록 이스라엘이 언약의 동반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다른 한쪽 동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언약 관계를 파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 역사 속에서 계속 유지되어 온 근거이기도 하다.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헤세드’는 신약에서 아가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사상적 배경이 되기도 한다.

한다.

여호와의 ‘선하심’은 이스라엘에게 복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어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는 것으로 구체화된다(신 7:6-8).

그런 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의 언약관계가 유지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스라엘의 공적 덕분에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곧 하나님의 ‘헤세드’ 덕분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이다. 그것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근거이면서, 또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확신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와 집주인이 되시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것이다.

### 강지윤 칼럼 가을 힐링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향기가 달라졌습니다. 숲 너머의 강물 빛깔도 달라졌습니다. 강물 위의 하늘은 형언 못할 빛으로 펼쳐져 바라보기만 해도 막혔던 가슴이 뚫리는 듯합니다.

무덥던 지난 여름의 생채기들을 지우는 힐링의 계절이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고통의 땀샘들이 달하고 뾰송뽀송하고 맑은 영혼으로 치유되고 정화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난 여름을 치열하게 살아온 느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때때로 상담실 안에서 생명이 갑아먹히는 듯한 소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심리상담은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

그래서 회복과 충전을 위하여 종종 산으로 가거나, 바다를 보러 가거나,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회복력이 빠릅니다. 더구나 치유된 이들의 훤히 미소 한



번이면, 그간의 모든 피로가 눈 놀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제가 나누어 준 생명은 사랑. 그 사랑은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제게로 다시 돌아와 저를 회복하게 해 줍니다.

마음을 열면, 가을향기는 마음 속 아픔을 강력하게 치료합니다. 지금 시장에 나가 보면, 제가 좋아하는 형형색색의 과일들이 지친입니다. 과일 향기는 코끝을

지나 폐부로 들어가 깊은 치유를 가져옵니다. 천상의 과일이라고 탄복하게 만드는 달콤한 복숭아, 탑스러운 포도송이, 한 입 베어 물면 입 안 가득 상쾌한 멜로디로 물들게 하는 빨간 사과…: 그 과일들을 맛보며 저는 또다시 행복해집니다.

가을엔 더 깊이 사랑하리라는 다짐. 가을엔 사랑하겠습니다. 가을 하늘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제가 예전에 쓴 시의 한 티막, “채색한 하늘은 가난한 마을 어귀에서도 저렇게 설레는구나…” 저렇게 설레는 가을하늘을 내 마음에 담고 당신에게 가겠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당신에게.

놀랍게도 생명을 나누어준 사람은 다시 제게로 돌아와 저의 결핍된 마음을 채워 주곤 합니다. 그리하여 맑고 투명한 가을햇살에 비추어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제 사랑으로, 그도, 누군가도, 모두 힐링이 될 수 있도록.

제게 먼저 생명을 나눈 사랑을 주신 주님의 은총 덕분에 이 가을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갑아먹힌 그분의 사랑, 그 사랑이 가을 은총 속에서 당신의 생채기진 마음을 다 치유하기 기도합니다. 당신을 힐링하는 향기로운 가을의 소리, 지금 듣고 계신가요?

강지윤 박사(심리상담학 박사,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대표)

북상 책갈피

### 성령의 성전

본지는 [북상 책갈피] 코너를 통해 신앙도서에서 은혜롭고 감명 깊은 내용을 선택해 간략히 소개합니다.



1. 요한복음 4:24에서 영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잡은 요소로서 인간은 영을 통하여 거룩한 세계와 교통할 수 있다. 영은 자기통제의 자리이며 참된 예배가 거행되는 곳이다(롬 1:9).

“나는 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 고데(Godet)

2.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육신에 속한 그들의 심각한 상태로부터 벗어나라고 호소하면서 그들이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그들을 여러 차례 설득하는 것을 주목하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성령의 내주하심을 설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모든 신자가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육신에 속한 저급한 삶으로부터 떨어지고 나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모든 신자에게 이 자식을 전해 주기 위해 애쓰자. 그것은 그들의 하늘 상속권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고 기꺼이 대답할 수 있도록, 충만한 체험 가운데 그것을 알고자 진력하고 있는가?

앤드류 머레이 「그리스도의 영」 크리스천다이제스트 P212~213

## 4,240번의 연구로 태어난 스킨 허그 미스트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SCIE급 논문 등재  
큰 열매 모자반  
성분 함유



11가지 천연성분  
레시피 함유



100ml / 3.38 fl.oz.

skin  
hug  
mist



검색창에 “라파로페”를 검색해보세요.

QR코드 찍고  
구매하러 가기

고객상담센터 043-900-0367

쇼핑몰주소 www.rafarophe.com

## 은혜의샘물 역사는 정신에 지배된다 (2)

소인과 대인이 어떻게 다르나는 질문을 받은 맹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것을 따르는 자를 소인이라고 하고, 큰 것을 따르는 자를 대인이라고 한다.” 영웅이 무엇이라는 질문을 받은 미국의 신학자 조셉 캠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삶을 자기보다 큰 것에 바친 사람이다.” 이렇게 대인이나 영웅은 자기보다 큰 것에 자신을 바침으로써 한 시대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입니다.

영웅을 헬라어로 ‘헤로스(heros)’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반신반인(demigod)을 뜻합니다. 헤라클레스, 디오니소스, 테세우스와 같은 영웅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자기보다 큰 것에 자신을 바침으로써 마침내 자기 시대의 주인공들이 되었고, 인간의 한계인 죽음까지도 뛰어넘어 부활 승천하여 영원한 존재인 신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제우스와 같은 불멸의 존재가 있는가 하면, 이들 영웅처럼 영원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영웅들의 삶은 한 귀퉁이가 모자란 채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삶이 영웅이 되는 필요조건은 아닌데 불구하고, 타고난 한계와 고

난의 세월을 경험하지 아니한 영웅의 이름을 신화는 별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비단 그리스의 신화에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의 생애가 그렇고, 예수와 바울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타고난 한계와 고난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삶을 자기보다 큰 것에 바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삶의 가치를 정신과 신앙에 두지 아니하고, 물질과 명예와 권세에 두었던 사람들의 업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칼과 창으로 세운 헬라 제국이 채 삼백 년을 넘기지 못하고 역사의 뒤판길로 사라지고 말았고, 삼백 년 가깝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 제국도 역사에 그 흔적만을 남긴 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물질보다는 정신을 명예보다는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했던 예수의 나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가복음 삼이장 삼십절).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가

복음 삼이장 삼십일절)고 가르쳤던 예수의 나라, 매를 맞고 십자가에 매달렸던 예수의 나라는 그 엄청난 박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인한 나라로 이천년 가깝게 역사를 지배하며 역사 위에 우뚝 서 있습니다. 물질보다 더 강한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정신보다 더 강한 것은 역사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라비 가운데 요한나 벤 자카이

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나는 유대 민족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하여 좌절하고 있을 때에 유대주의를 발전시켜 크게 보급한 라비입니다. 주후 육십팔 년에서 칠십 년 사이에 유대인 열심당원들이 로마군에 대항하여 독립 전쟁을 일으켰을 당시 요한나는 온건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경파였던 열심당원들이 군사적으로 크게 열세한데도 불구하고 로마군에 대항하자, 요한나는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 민족이 역사에 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는지를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로마군의 총사령관을 만나기로 작정하고 강경파들의 감시망을 뚫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갈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이 죽은 자의 시체를 부정하게 여겨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꾀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나는 유명한 라비였으므로 그가 병을 앓는다는 소문과 결국 죽었다는 소문이 온 성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안에는 묘지가 없었으므로 그를 성밖에 묻을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열심당원들에게 강경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열심당원들은 요한나의 관에 칼을 찌르려고 했지만, 라비의 시신에 칼을 대는 것은 그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제자들의 항변에 부딪쳐 성문 통과를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성안을 빠져 나온 요한나는 성과를 포위하고 있는 로마군의 총사령관 베스파시아누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요한나는 베스파시아누스를 처음 본 순간 그가 네로를 이어 차기 황제가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황제의 예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부탁을 했습니다. “방 한 칸이라도 좋으니, 열 명 정도의 라비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하나 만들어 주되, 이 학교만은 절대로 파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요한나는 조만간 예루살렘으로 마에 의해 점령당하여 대량 학살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전이 훼파되어 다시는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죽어난 유대인들은 세계를 떠도는 나그네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만 있다면 유대 전통을 변함없이 전승시킬 수 있으리라 확신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사령관은 요한나의 예언대로 육십팔 년에 황제로 등극되었고, 요한나의 요청대로 지중해 서안에 위치한 읍바 근처 아브네에 세워진 요한나의 학교를 파괴하지 말도록 지시했습니다. 비록 국가는 망해 버렸고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그 때 그 학교에 남아 있던 라비들은 살상을 멈추어 유대 지식과 유대 전통을 지키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강한 나라들은 하나둘씩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가장 힘없는 나라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어렵고 지루한 역경과 시련을 딛고 굳세게 살아남아 결국 천구백사십팔 년에 국가를 재건하는 강한 신앙과 정신력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꿈 있는 한 사람의 라비가 가르친 민족 정신과 신앙이 역사에 이어지면서 보이는 나리가 없어도 수천 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탈무드를 요약하여 출판한 마빈 토케이어는 유대인의 저력을 ‘학문에의 집착’, ‘권위에의 도전’, ‘불굴의 정신’, 그리고 ‘자기 확립’이라고 분석하면서, 국토 없는 떠돌이 민족으로서의 설움 속에서 수천 년을 보내는 동안 유대인들로 하여금 굳건한 민족으로서의 정신으로 그 역경을 헤쳐나가게 한 유대인 특유의 근본 사상은 바로 성경과 탈무드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유월절 이면 고난과 가난의 상징인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기도하기를, “금년에는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먹지만,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먹게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꿈이 바로 오늘의 유대인이 있게 한 저력입니다. 역사는 정신에 지배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제공

### 향유목록

## 피로 물든 신앙, 꺼지지 않는 증언

오늘날 전 세계 삼억 유�腆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불타고 목회자는 감옥에 갇히며 신자들은 납치와 방화, 고문과 살해 위협에 시달립니다.

지난 삼십 년 동안 박해는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일흔여섯 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수준의 폭력과 차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피와 눈물로 기록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지하 교회에서, 산속의 오두막에서, 감옥의 차기운 바닥에서 조차 찬송과 기도가 멈추지 않고 울려 퍼집니다.

박해는 오히려 믿음을 더욱 순수하게 만들고 복음에 대한 간절함을 더욱 깊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

답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복음 삼육장 삼십절) 이 말씀은 피흘리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불드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뭔지 알 수 없습니다. 편안히 앉아 있는 우리는 그들의 눈물과 피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몸 된 우리는 하나이기에 그들의 고난은 곧 우리의 고난입니다. 박해받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역사는 증언합니다. 박해가 교회를 무너뜨린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박해 속에서 더 깊어지고 복음은 어둠 속에서 더 멀리 퍼져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조롱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박해받는 교회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인가. 박해의 시대, 진정한 믿음으로 서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사야 43:10)  
산마루서신 제공

〈산마루서신 http://www.sanletter.net〉은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과의 영적인 대화이며, 진실한 만남이며, 사랑의 소통입니다. 참된 삶을 구하는 모든 영혼들과의 진실한 주님 안에서의 대화입니다.

### 이야기하늘나라

## 예배를 빠지면

한 사람만 교회에서 집사 직분 까지 받았으나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 지겨워했습니다.

그는 주일 날 아침만 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예배를 드리지 않을 궁리만 했습니다.

하루는 “여보, 오늘 우리 두 사람 중에 당신이 대표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구려. 나는 대표로 남아서 집을 볼게.”라고 하면서 아래 혼자만 보냈습니다.

그는 예배 시간에 집에 혼자 남아 낮잠을 자다가 문득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아래와 함께 천국문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을 지키고 있던 천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지요? 그럼 대표로

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오시오!”

집사님은 소스라치게 놀라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지루하게 여기며 자원해서 드리기를 거부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다시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성도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방해한 엘리제사장의 두 아들 휴니와 비느하스는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사는 동안 예배를 통해 주님을 친히 뵙고 교제하는 일을 무한한 특권으로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 닷컴 제공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AICh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열어갑니다

<div style="position: absolute; left: 150px; top: 150

#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중에 거하십니다(시22:3).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보좌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기도중이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을 드리던지 아니면 그것을 노래로 표현 하던지,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영으로 찬송하는 가운데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는데 있어서 반드시 음악적인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 물론 음악적인 행위는 우리에게 찬송의 마음을 북돋아 줍니다.

음악은 찬송을 듣는 귀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음악행위 자체가 찬송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찬송의 마음으로 연주하는 음악은 그 자체가 훌륭한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적인 행위가 전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의 고백 그 자체를 받으시고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깊이 임재하시는 찬송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찬송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히11:6)

우리가 아무리 음악적으로 훌륭한 합창과 독창 또는 관현악으로 찬송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찬송은 새 생명의 찬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옛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으로 드리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직접 죽고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자신의 옛 생명이 십자가에서 죽고 새 생명으로 부활한 것이라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부활한 새 생명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쁘게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드리는 찬송에 하나님은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아직도 옛 생명의 모습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앞에 나아가는 순간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가 덧 입혀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기쁘게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도로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훌륭한 외적 음악적 표현만을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입니다.

출처 : 다음카페 만나와 메추리기

## 예배 찬송에 관하여 1



김현수 목사

음악 영화 “세상의 모든 아침”은 진한 감동과 함께 생각할 거리를 많이 제공한다. 꽃봉보라는 위그노 음악가의 생애를 그린 그 영화에서 인상적인 한 장면은 폭풍우가 물어치는 카메라 밤에 폭풍보가 그의 제자 마랭 마레에게 그 폭풍 속에서 저음부터 스타카토까지의 음을 들어보라고 가르치는 부분이었다. 그 위대한 음악가에게는 자연이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음악의 원천이었던 것이다.

비록 우리가 그런 음악가는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는 온갖 종류의 음으로, 그 음의 운동(음악)으로 가득 차 있다. 또한 그 음악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우리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의류 매장에 가면 대체로 빠른 팝송을 들을 수 있는데, 경쾌한 음악을 틀지 않았을 때보다 20%의 매상을 더 올릴 수 있다고 하니, 여기에서도 음악의 힘을 새삼 느끼게 된다.

음악과 우리 생활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는데, 생활의 중심인 예배 역시 음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구원을 받았을 때 그들은 즉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광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져셨음이로다”

로 시작하는 노래로 구원의 하나님을 기렸다(출 15:1,2). 또한 시편 기자는

“너희 의인들이, 여호와를 즐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고히 연주할지어다”

라고 찬양을 가르친다(시 33:1,3). 히브

리서 기자도

“이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친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나라”

라고 가르친다(히 13:15). 이러한 명시적인 가르침 때문에 예배와 찬송의 긴밀한 관계를 부인하는 기독교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인가, ‘어떤 찬송’을 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에 이르면 엄청난 의견의 차이가 발생한다.

요즈음 젊은이들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독요찬양모임”的 영향을 받아 헤비메탈(heavy metal)을 사용하는 “복음송”(gospelsong)을 즐겨 부른다. 그 모임에서 부르는 곡들은 대체로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거나 감성에 호소하는 것들이다. 기사에 성구가 들어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 로큰롤(rock'n'roll)이나 팝송과 다른 점을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로큰롤을 삶어하는 장년층은 그런 찬양이 나쁜 것이고, 심지어 사탄적이라고까지 비난한다. 반면 그것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은 기존의 찬송가에도 예전의 “복음송”들이 많이 들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차이를 단순한 세대간의 문제로 돌려 버린다. 세월이 흐르면 그들이 부르는 “복음송”도 찬송 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찬송 책에 “복음송”이 많이 들어 있음을 사실이다. 19세기에 회개와 전도 그리고 선교를 강조하는 대규모의 부흥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회개와 전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흑인 영이나 재즈(jazz)를 이용한 “복음송”을 만들었다.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다. 그러나 그 당시의 어떤 유명한 부흥사처럼

“자연을 지배하는 법칙이 있듯이 사람을 회심시키는 법칙이 있다”

고 말하면서 사람의 감정을 조작하는 방법론을 도입하였다. 복음 전파도 하나님 중심에서부터 그러한 방법론을 잘 사용하는 “유명한” 설교자 중심으로, 즉 인간적인 것으로 점차 변모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회심의 법칙”의 하나로 등장한 복음송도 자연히 인간 중심적인 특징을 지닌다. 회개를 강조하기 위해 세상을 부정적으로 그리는 가사들이 애탠조의 가락이나 삼박자 풍의 노래와 함께 짹을 이루기 시작했고, 복음 전파의 열정을 고취하기 위해 당김음을 많이 사용하거나 단순한 리듬을 반복하는, 그리하여 흥분 상태로 몰아가는 노래들이 만들어졌다. 비록 완화된 형태이지만, 후련구가 붙은 노래들이 대체로 그런 류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찬송가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초기 선교사들은 대부분 부흥 운동에서 선교에 헌신하고 온 사람이다. 물론 구 프린스턴(the Old Princeton) 신학교 출신 선교사들도 있었지만, 이들 역시 음악적 소양이 잘 갖추어진 사람들이다. 그리하여 19세기의 “복음송”이 한국 교회에 소개되었고, 유럽 대륙의 시편 찬송 등은 찬송가 앞부분에 있는 몇 곡만 소개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애탠조의 노래들은 일제하의 상황이나 한(恨)의 정서와도 일치하는 바가 있어, 점점 더 많은 “복음송”이 찬송가에 들어왔다. 한국 찬송가에 수록된 “복음송”的 비율에 대한 어떤 연구에 의하면, 최초의 악보 찬송가인 『찬양가』(1894년)에는 117장 중 28곡(24%), 장로교와 감리교가 공동으로 발행한 『찬송가』(1908년)에는 266장 중 104곡(39%),

『신정찬송가』(1931년)에는 314장 중 132곡(42%), 『신편찬송가』(1935년)에는 400장 중 166곡(42%), 성결교에서 만든 『부흥성가』(1930년)에는 342장 중 193곡(56%), 『합동찬송가』(1949년)에는 586장 중 312곡(55%), 『새찬송가』(1962년)에는 671장 중 289곡(43%), 『기쁜찬송가』(1962년)은 620장 중 182곡(29%)의 “복음송”을 포함하고 있다.

외국 찬송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복음송”的 비율이 높다. 말하자면 아류(亞流)라 할 수 있는 “복음송”이 한국 교회 찬송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현재의 찬송 책에도 “복음송”이 들어 있다는 젊은이들의 지적은 ‘역사적’으로는 옳다. 그러나 그 지적이 곧 현재의 “복음송”을 ‘음악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복음송”을 정당화하려는 자들은, 비록 그들이 로큰롤의 가락이나 리듬 그리고 그 비트를 이용하더라도 거기에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전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는 영어 가사의 뜻은 전혀 모르면서도 팝송을 수백 곡 불리대는 친구를 본 적이 있다. 가사가 아니라 그 곡 자체가 그 친구의 감정과 생활 방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 음악 전문가들은 로큰롤 “복음송”을 두 세 시간 불러 도달한 감정의 상태나 일반로큰롤을 두 세 시간 불러 이룬 감정의 정도가 동일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추상성이 매우 높지만, 곡 자체가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하고 있다는 음악의 기본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송”이 성구를 포함하고 있기에 괜찮다는 주장은 ‘음악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노래는 기사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이다. 지금의 찬송 책에 포함된 19세기의 “복음송”이나 젊은이들이 즐겨 부르는 최신의 “복음송”은 모두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인간의 감정을 겪고하는 점에서 ‘성경적’으로 문제 가 있다고 생각된다.

예나 지금이나 “복음송”을 부르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울적한 마음을 달래거나 기쁨을 고취하기 위해 감상적이거나 로맨틱한 곡을 부르고 혹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행진곡풍의 노래를 부르며, 전도를 하기 위해 회개를 촉구하는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다양한 곡을 부르지만 공통된 것은 그 노래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향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찬송은 자신의 마음을 달랠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전도의 수단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독일 예술가곡(Kunstlied)을 오페라 아리아처럼 불러서는 안 되듯이 찬송도 다른 노래를 부르듯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술가곡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예술가곡을 제대로 부를 수 있듯이 찬송이 무엇인지 를 성경에서 배우지 않고는 바른 찬송을 드릴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가르친다. 앞에서 인용한 히브리서 13:15에서도 그 “입술의 열매”를 “찬미의 제사”라고 하며, 시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찬송을 기뻐 받으심을 제사에 비교하여 가르친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 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시 69:30,31). 찬송은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찬송도 그 기원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에게 있음을 가르친다(시 57:19).

제사도 인간이 드리나 그 기원은 하나님에게 있고 그 범도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 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찬양으로써 인간의 감정이나 헌신을 북돋우려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그 범도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흔히들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라 고 하지만,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인간의 정성이나 감정을 강조하는 이교적인 것이고, 계시 종교인 기독교의 제사는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 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그 불에 죽은 일이 제사의 범도를 가르친다. 직후에 발생하여 후대의 제사장들에게 큰 경고를 주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참고 레 10:1,2). 구야의 제사에서는 제사장과 제물이 모두 무흠해야 했다(참고 레 21:16-24; 22:18-25).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정성을 다 기울여도 무흠할 수 없다.

따라서 찬송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할 것이다. 드리는 찬미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신 직한 것이 되어야 인간의 감정을 쏟아 놓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됨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음악을 하고 아무리 자기의 정열을 다 쏟고 정성을 다 모았다 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 입의 낙헌제(樂獻祭)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라고 간구하면서 찬송을 드렸던 것이다(119:108). 혹시 예배시에 부르는 곡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호를 담는 찬송을 부를 때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전 5:2)는 말씀을 명심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김현수 목사(대전성은교회)

##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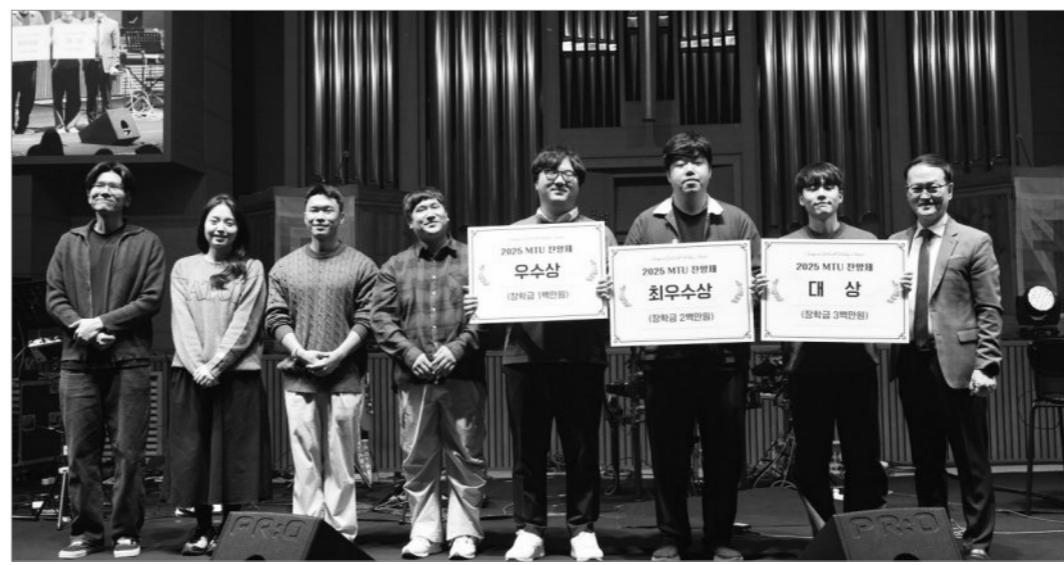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 감신대, 2025 MTU 찬양제 성료



감리교신학대학교 2025 MTU 찬양제 참석자 기념 사진. ©감신대



수상자들의 모습. ©감신대

### 학생들의 신앙과 열정이 가득 담긴 찬양제, 대상은 '감다실 웨지감자'팀

감리교신학대학교(총장 유경동)가 최근 '2025 MTU 찬양제'를 성료했다. 이번 찬양제는 감신대되었으며, 유경동 총장은 개회 축사에서 "찬양으로 하나 되어 감신대라는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서 무수히 많은 열매를 맺는 기쁨의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어 민오디

2025 MTU 찬양제에는 예선을 통과한 6개 팀(홀리클럽, 프레센스 콰이어, SDG, 감다실 웨지감자, 함께, WRMC)이 참가했다. 행사에는 55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심사위원으로는 한웅재 목사, 권진숙 교수, 박성호 교수, 조형진 교수가 함께했다.

찬양제는 권진숙 학생경건처장의 개회로 시작되었으며, 유경동 총장은 개회 축사에서 "찬양으로 하나 되어 감신대라는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서 무수히 많은 열매를 맺는 기쁨의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어 민오디

참가팀들은 각기 다른 곡을 선보였다. 홀리클럽은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프레센스 콰이어는 "가족하신 전능의 주", SDG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감다실 웨지감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학우는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너", WRMC는 "예수 달기"를 발표하며 찬양제를 풍성하게 했다.

모든 무대가 끝난 후, 실시간 학생 투표와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해 수상자가 발표되었다. 대상은 감다실 웨지감자 팀이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은 함께, 학우, 우수상은 홀리클럽이 수상했다. 감다실 웨지감자 팀의 팀장 박정훈 원우는 팀명을 소개하며 "이 팀은 감리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끌끌까지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찬양제 후에는 조성현 목사(일산광림교회)가 이끈 축복의 찬양과 함께 모든 참가팀이 연합하

여 마지막 찬양을 불렀다. 이후, 한웅재 목사의 특별공연과 유경동 총장의 축도로 행사 순서가 마무리됐다.

권진숙 학생경건처장은 "이번 찬양제는 학생들의 신앙과 공동체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캠퍼스 내 찬양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준비되었다"고 전했다.

유경동 총장은 "학생들이 즐거운 찬양의 축제를 경험한 것이 큰 기쁨"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찬양을 통해 세상에 감동을 전하는 감리교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지동 기자

###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TV새벽예배 40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시선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0 25 가정과 자녀 축복 및 추수감사 특별새벽기도회 생방송	00 생명의 삶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30 은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다시 보는 명설교 Theول(40회) 30 TV강단 삼일(승태근)	10 강연소 통(35회) 한국교회를 기록하다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이경은 목사(진주초대교회) 30 생명의 말씀-오늘의 말씀-오늘의 말씀	20 힐링스토리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비전설교 시애틀형제교회 권준 목사	10 [말씀] 김형중 목사(동안교회) 50 하윤조 목사의 사랑	00 생명의 양식 대한(윤영민) 30 축복의 말씀 (차영아)(357회)	00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노년당회(956회) 50 김운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25회)
	7:00 00 CTS 뉴스 W 20 생명의 말씀-박성순 목사(대구동부교회) 50 생명의 말씀-김형석 목사(필그림교회)	20 행복한 쉼터 이리산광고회 권오국 목사 50 행복한 쉼터 소명중앙교회 김대성 목사	30 휴먼네트	20 김동호 목사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485회)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667회)	00 포항중앙교회 주일예배실황 손병렬 목사
	8:00 20 내가 매일 기쁘게	20 조정민 목사의 담담 30 행복한 쉼터 삼천포 삼현교회 하태경 목사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00 하나님의 음성(78회) 20 CBS 성서학당 (송태근)(4381회) 고린도전서 11강	00 고민격 크리스천 치트 토크쇼 : 차록(27회) 복음과 세상 종교 차이 30 비전메시지 새빛교회 김용일 목사
	9:00 10 두란노 성경교실 예수로 읽는 성경	00 사랑의 메시지 에버그린교회 김학필 목사 30 사랑의 메시지 인천제일교회 이제일 목사	00 [말씀] 박태호 목사(방주교회) 40 Q&A 107 소요문답 50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10 새롭게 하소서(1136회) 전요셉 목사	00 성지가 좋다(504회) 모세오경의 땅, 이집트를 가다 5부 30 김운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4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159회)
	10:00 00 오마이갓생 20 말씀대로 살라-김선교 선교사	00 2025 다니엘 기도회0	20 THE NEW 하늘빛향기	00 파워인터뷰(202회) 2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93회)	00 오직주님 명성의 위십 김하나 목사
	11:00 00 7000미라클 - 열방을 향하여 5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00 비전설교 가나안교회 장경덕 목사 30 비전설교 베이직교회 조성민 목사	10 [말씀] 황성은 목사(창동염광교회) 50 예수동행일기	20 세상을 보는 창(283회) 50 만나다(1회)	00 성지가 좋다 국내편(41회) 무지내교회 30 C채널 매거진 굿데이(335회) 50 성찬의 소리 성찬교회 오원호 목사
	12:00 00 CTS 뉴스 W 20 신앙에세이 30 수영로의 시간-이규현 목사	00 사랑의 메시지 배송교회 이순희 목사 30 사랑의 메시지 하늘꿈교회 신용대 목사	10 바이올 필름 <누가복음> 20 [말씀] 이건호 목사(순복음대구교회)	00 TV강단 진주초대(이경은) 30 TV강단 그린시티(조성민)	20 성경 속 전쟁사(16회) 사사사대 최후의 내전 : 베냐민의 물락 50 복음강단 부민교회 박현명 목사
	13:00 20 오정현 목사의 비전목상 3분 미라클 30 구자역 목사의 트롯찬양교실	00 행복한 쉼터 임마누엘교회 전당암 목사 30 행복한 쉼터 충일교회 박상현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	00 올포원(682회)	30 성지가 좋다(504회) 모세오경의 땅, 이집트를 가다 5부
	14:00 00 [생방송] 콜링갓 50 월더풀우먼	00 GOODTV 특별간증 2024 다니엘 기도회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강준민 목사(서생명비전교회)	00 말씀의 힘 칭창일(이사무엘) 30 CBS 아카데미 금(169회)	00 하와이 기독교 역사팀방(1회) 거룩한 디아스포라의 시작 30 믿음의 리액션(4회) 강원도 영월
오후	15:00 40 7000미라클 - 열방을 향하여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꿈	00 [말씀] 류승렬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 40 생명의 삶	20 CBS 성서학당 (김홍규)(4380회) 민수기 8강	10 글로벌 신앙토크쇼 웃초업(36회) 현금 날 때마다 생각이 많아져요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16:00 30 생명의 말씀-장경덕 목사(분당가나안교회)	00 오희숙 목사의 국제 바이블 사관학교 30 사랑의 메시지 순복음침아름다운교회 안병찬 목사	00 하윤조 목사의 요한복음 강해 40 바이올 필름 <누가복음> 50 [말씀] 박성근 목사(남가주새누리교회)	10 통박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26회) 50 만나는 교회(14회)	00 내 삶의 행복(18회) 50 김운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17:00 00 더위심 50 신앙에세이	00 조정민 목사의 담담 1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40 행복한 쉼터 영광의교회 조이엘 목사	30 2023 KGMLF	50 영혼의 양식_산위의마을(김영준)	00 강연소 통(35회) 한국교회를 기록하다 50 비전메시지 수원은혜교회 황유석 목사
	18:00 00 생명의 말씀-김경년 목사(덕천교회) 30 지금, 선교해YOU	10 비전설교 혜성교회 정명호 목사 40 더 깊은 올림 헤세드 워십	10 레디온 5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	00 TV강단 당진동일(이수훈) 30 TV강단 김포 좋은 나무(이성현)	30 복음강단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
	19:00 20 [드라마] 더 초존	00 사랑의 메시지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	30 구약의 세계로 <오십쇼>2	00 TV강단 거룩한빛광성(곽승현) 30 TV강단 동수(주학선)	00 성지가 좋다(504회) 모세오경의 땅, 이집트를 가다 5부 30 복음강단 청주서부교회 장승권 목사
저녁	20:00 20 더위심	00 2025 다니엘 기도회 생방송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떠나보면 알게되는 <여행의 이유>	00 TV강단 순복음월당(고경환) 50 크리스천칼럼_중앙성결(한기체)	00 비전메시지 강남비전교회 한재우 목사 40 비전메시지 The Life 지역총교회 김인환 목사
	21:00 00 조셉 프린스 목사의 뉴크리에이션 30 말씀노트 말씀한장 50 CTS 뉴스	00 2025 다니엘 기도회 생방송	00 소망교회 주일예배 50 CGNTV 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온누리교회 SNS청년부-	00 CBS 성서학당 (송태근)(4381회) 고린도전서 11강 50 잘 믿고 잘 사는 법(37회)	10 김하나 목사의 말씀강해(41회)
	22:00 20 두란노 성경교실 예수로 읽는 성경	00 GOODTV 뉴스 20 윤호균 목사의 말씀강해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3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00 CBS NEWS 10 20 새롭게 하소서(1136회) 전요셉 목사	00 예루살렘 데이트라이언(501회) 20 소문난 성경교실(575회) 오택현 교수 세 번째 13강 박물관에서 말씀을 발굴하다 : 텔단 석비 50 김운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25회)
	23:00 10 [CTS 30년 믿음의 명작] CTS특집다큐	10 이단사이렌0	10 젠센 프랭클린의 부흥 40 생명의 삶 50 바이올 필름 <누가복음>	10 더 콜링(161회) 30 목사님 궁금해요(129회) 5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667회)	00 장종현 목사의 비전메시지(3회) 40 리비아초 워십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24:00 00 콜링갓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10 이석 목사의 믿음으로 사는 삶0 30 다큐 더 로드0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유은정 원장의 마음치료 코칭1	10 2024 한소망교회 간사 부총회장(8회) 50 성경골든 이것이 궁금하다(72회)	00 세이렌 강단 소강석 목사
	1:00 00 말씀대로 살라 40 내가 매일 기쁘게	10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 백석대 장종현 총장	00 [말씀] 백금산 목사(예수기독교) 4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00 셋이면 넘어지지 않아 스페셜(7회) 40 임석순 목사의 주일 강단(500회)	00 만나 U(3회)
	2:00 30 백세특강	00 매일 주와 함께	20 [말씀] 김영익 목사(벧엘롬교회)	30 TV강단 시온(박성준)	00 만나 워십 김병상 목사
	3:00 00 두란노 성경교실 예수로 읽는 성경 50 이영훈 목사의 힐링스토리	00 GOODTV 특별간증	00 [Global Sermon] Jentezen Franklin's Revival 30 [말씀] 임채영 목사(서부성결교회)	00 멋나는 교회(14회)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옥한흠 목사 30 [CTS 30년 믿음의 명작]내 영혼의 찬양	00 GOODTV 오늘의 찬양 10 생명양식 데일리큐티 2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인천제2교회 이건영 목사	10 [말씀] 마크 최 목사(뉴저지온누리교회)	00 CBS 성서학당 (신우인)(3370회) 출애굽기 33강 50 CBS 교회소식(1024회)	00 클래식 말씀의 찬(21회) 이정익 목사 30 C채널 명설교 다시 복음으로(40회)

## '한 사람을 세우는 제자도' 주제로 청년들 모인다 '2025 오리진콘'

기독 청년들의 모임인 오리진스콜라가 오는 12월 6일, 서울 협정 DSM 아트홀에서 제2회 오리진콘(오리진콘)을 개최한다.

이번 주제는 'Discipleship-한 사람을 세우는 제자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략으로 제자도에 헌신하신 예수님을 따라 각 영역마다 사람을 세우는 제자도를 실천하고자 모인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컨퍼런스는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세션에서는 양종석 전도사(오리진스콜라 디렉터)의 제자도 특강, 세션2에서는 '영역에서의 제자도 전략'을 주제로 한 영역별 팀빌딩, 세션3에서는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가 말씀을 나누며 오픈워십으로 드려진다.

오리진스콜라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북클럽을 진행하며 크리스천 청년들과 가치관을 나누고 있다.

이번 제2회 오리진콘도 역시 그 흐름의 연장선 상에서, 한 사람을 세우는 선교적 제자도의 실천을 통해 영역주권 회복의 발걸음이 더욱 힘을 얻길 바라며 개최된다고 주최 측은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Maeil**  
Maeil Health Nutrition

# AUSTRALIFE®



**맛있는 호주산 산양유 단백질,  
드셔보시면 프리미엄은 확실히 다릅니다.**

**1 속편한 호주산 산양유  
국내 최다\* 함유**



**2 한끼 영양 설계에  
식이섬유, 오메가3까지**



AUSTRALIFE®



◀보러가기



**무료 제품 상담 및 할인 금액 주문 가능!**

**전화 주문 가능** [무료상담] | **080-860-1539** [내선 2번]

\*국내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중, 2024년 7월 기준